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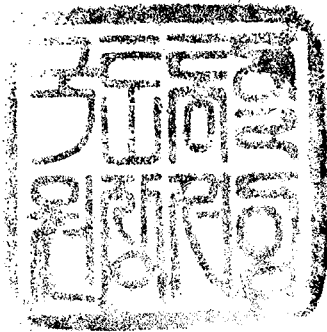
北韓文化財研究資料

국통조 88-3-11

# 高句麗文化財解說

— 在日朝總聯發行 —

1988. 3.



院 一 統 土 國  
室 究 研 查 調

本 冊子는 '86 年 日本考古學協會와 朝總聯 朝鮮  
畫報社 共同主催로 日本에서 展示된 高句麗 文化財  
解説圖錄인 『高句麗文化展』을 翻譯한 것입니다.

同 冊子에는 102 點의 高句麗 壁畫와 遺跡, 出  
土·復元品 등 展示品에 대한 解説과 함께 北韓 및  
日本考古學者의 高句麗文化財 研究論文도 收錄되어  
있어 關聯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될 것으로 思料됩  
니다.

1988. 3.

調查研究室長 崔 文 鉉

#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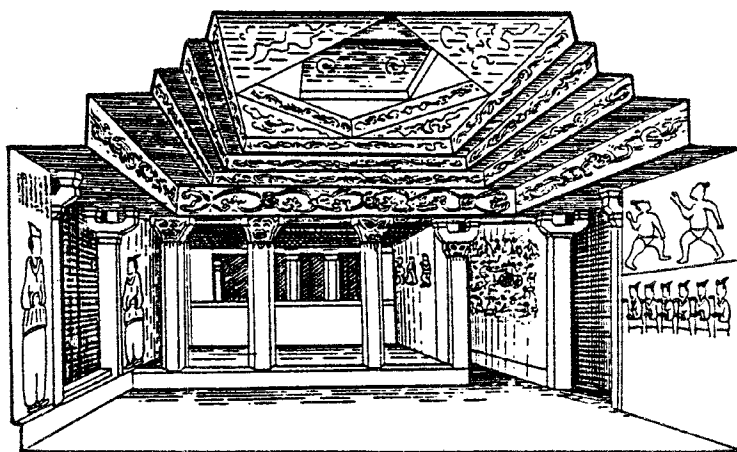
高句麗古墳 壁画에 대하여 .....	朱榮憲 .....	3
〈古墳壁畫〉 .....		21
安岳第 3 號墳 .....		23
安岳第 1 號墳 .....		28
德興里壁画古墳 .....		28
藥水里壁画古墳 .....		34
大安里第 1 號墳 .....		36
水山里壁画古墳 .....		36
雙楹塚 .....		36
安岳第 2 號墳 .....		37
湖南里 4 神塚 .....		37
眞坡里第 4 號墳 .....		38
德花里第 2 號墳 .....		38
眞坡里第 1 號墳 .....		39
江西大墓 .....		40

江西中墓 .....	41
角抵塚 .....	41
無踊塚 .....	42
三室塚 .....	42
長川第 1 號墳 .....	43
輯安 5 塊墳第 4 號墓 .....	43
輯安 5 塊墳第 5 號墓 .....	44
<b>〈遺跡・出土品・復元品〉 .....</b>	<b>53</b>
安鶴宮址와 定陵寺址의 發掘調査에 관하여 .....蔡熙國 .....	79
高句麗文化와 古代의 日本 .....上田 正昭.....	87
高句麗古墳壁画와 日本古代美術 .. 上原 和 .....	99
廣開土王陵碑文과 古代日朝關係史 ... 旗田 巍 .....	111
<b>〈附 錄〉</b>	
高句麗年表 .....	123
目 錄 .....	125

# 高句麗古墳壁畫에 대하여

朱 榮 憲

(北韓 社會科學院  
古考學研究所 副所長)



王室·前室의 透視圖(安岳第3號墳)

高句麗는 百濟나 新羅보다 먼저 國家를 樹立하였으며, 領土와 人口에 있어서도 가장 強大했을 뿐 아니라 科學과 文化의 面에서도 훨씬 앞선 나라였다. 따라서 高句麗의 文化는 民族史와 그 文化中에서도 特別히 重要한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百濟나 新羅, 伽倻等 諸國에도 多大한 影響을 주어 오고 있었다.

그 高句麗의 文化水準의 높음을 말해주는 많은 遺跡,

遺物中에서도 古墳壁畫는 高句麗文化의 精髓를 遺憾없이 보여준다.

高句麗壁畫古墳은 今日까지 70餘基가 밝혀졌는데 이들은 4世紀에서 7世紀中葉에 이르는 約400年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다.

高句麗의 古墳壁畫는 主題의 內容에 따라 人物風俗畫와 人物風俗 및 4神圖, 그리고 4神圖등의 세가지 類型으로 나뉘어 진다.

이 세가지의 壁畫類型은 時代的變遷과 發展을 하게 되는데, 人物風俗圖型은 4世紀에서 5世紀에, 그리고 人物風俗 및 4神圖型은 5世紀에서 6世紀에, 4神圖型은 6世紀에서 7世紀 中葉으로 編年된다.

이것은 文化·美術史上 光彩를 내는 高句麗古墳壁畫가 高句麗사람들의 獨自的인 葬禮文化의 變化를 反映하여 獨特한 變遷過程을 걸어 왔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들 壁畫는 高句麗의 畫師集團에 依하여 石灰반죽으로 된 壁面 또는 잘 研磨된 石壁에 直接 그려졌다.

使用된 顏料는 鑛物性이며 靑色, 黃色, 綠色, 靑紫色

및 黑色등이다.

이 밖에 糊粉등도 使用되었으며, 金箔과 銀箔 및 玉象嵌등의 華麗한 裝飾法도 使用되었다.

人物風俗圖에서 볼 수 있는 特徵은 무엇보다도 그 主題들이 豊富하고 多樣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王을 비롯한 貴族層들의 生前의 生活과 特筆할만한 일들이 그려져 있어, 그들의 生活과 活動들이 多面的으로 把握되어 여러가지로 表現되어 있다.

安岳第3號墳과 藥水里壁画古墳, 德興里壁画古墳, 舞踊塚長川第1號墳등에는 多樣한 主題들의 壁画들이 그려져 있어 貴族들의 生活이 잘 그려져 있다. 이들 人物風俗圖를 綜合해 본다면, 거기에는 高句麗時代의 生活과 諸般 活動들이 모두 描寫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高句麗의 支配層은 死後에도 亦是 生前과 같이 살고 싶다는 所望에서 墳墓를 華麗하게 築造하는데 많은 勞力을 아끼지 않고 投入하였다.

이렇게 하여 被葬者의 室內生活의 그림, 이를테면 主

人公 夫婦가 나란히 앉아있는 場面, 또는 會話를 하고 있는 모양, 그리고 政治를 다스리고 있는 狀況과 손님 의 接待를 하고 있는 곳 등등 여러가지 場面들이 그려져 있다.

나아가서는 肉類의 貯藏庫와 穀物을 搗精하는 방앗간 및 우물 그리고 외양간, 마굿간등이 리얼하게 그려져 있었다.

또 人物風俗圖에는 建築과 各種의 紋章들이 그려져 있다.

高句麗의 사람들은 墓室 그것을 地上의 建築物과 같은 構造로 하기 爲하여 墓室內의 四方구석에 料枳이 있는 기둥을 그리고, 그 위에 도리를 그려 놓고 있었다. 그리고 壁面에는 貴族의 邸宅과 지붕이 기와로 되어있고 용마루 兩端에는 물고기 모양의 裝飾을 한 當時의 官衙도 그려져 있었다.

또 高句麗의 사람들은 各樣各色的 紋樣을 즐겨 그리고 있었는데, 이를 크게 나누면 雲紋, 蓮花紋, 鬼面紋樣 및 忍冬唐草紋, 寶輪紋 및 幾何紋樣등으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人物風俗圖에는 王을 비롯하여 貴族支配層이 外出하는 場面, 卽 行列圖가 그려져 있다.

그 代表的인 것은 安岳第3號墳의 回廊과 德興里壁画 古墳의 前室의 東쪽의 折半 程度, 그리고 藥水里壁画 古墳의 前室의 東쪽 및 南쪽 壁에 그려져 있는 壯大한 行列圖이다.

또 人物風俗圖에는 音樂과 舞踊에 관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音樂에 관한 그림에는 주로 樂器를 演奏하는 場面인데, 壁画에 나타난 高句麗의 樂器에는 打樂器와 管樂器, 絃樂器들이 있다.



打樂器에는 建鼓, 懸鼓, 擔鼓, 振鼓, 腰鼓 등의 各種의 북과 鍾이 그려져 있다.

管樂器에는 大角, 小角, 雙穴大角, 洞簫, 橫笛 등이 있으며, 弦樂器에도 거문고, 琵琶 등이 있다. 이때까지 壁畫에 나타난 高句麗의 樂器는 이와같이 20餘種에 이르고 있다.

舞踊에 대한 그림은 樂器의 演奏와 結付된 舞樂의 場面인데, 거기에는 獨舞와 雙舞, 3人舞, 4人舞, 5人舞, 7人舞 등의 群舞들이 있다.

群舞에는 男女混成의 舞踊이 많은데 舞踊塚과 高山洞 10號墳의 舞踊圖들은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 高句麗에 있어서는 曲藝의 歷史는 아주 오래되어 있으며 그것도 手技와 足技, 曲馬 및 刀藝 등 多樣하고 豊富했었다는 것이 壁畫의 曲藝圖에서 잘 알 수 있다.

藥水里壁畫古墳과 八清里壁畫古墳 및 水山(修山)里壁畫古墳에서는 曲藝의 手技가 그려져 있다.

八清里壁畫古墳의 雜技圖에서는 曲馬와 刀藝가 그려져 있으며, 安岳第3號墳에는 刀藝가 보인다.

人物風俗画에는 單身 또는 群像의 人物服飾圖가 많이 그려져 있어 高句麗의 服飾의 多樣함과 獨特함을 잘 認識할 수가 있다.

高句麗의 男性服飾에는 安岳第3號墳 — 藥水里壁画古墳의 類型과 大安里第1號古墳 — 舞踊塚의 類型이 있다.

女性の 服飾의 경우는 저고리와 치마를 着用하고 있는데, 치마에는 주름치마가 많다.

水山里壁画古墳의 女性主人公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것과 같은 華奢한 模樣은 日本의 高松塚의 壁画에서 볼 수 있는 것과 酷似한데, 그 源流는 高句麗에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낸다.

高句麗壁画는 服飾뿐만 아니라 日常的인 携帶物까지도 그려놓고 있다.

이를테면 陽傘과 부채를 보면 曲線의 傘骨로 된 陽傘型和 直線의 傘骨로 된 陽傘이 있으며, 부채는 둥근형으로 되어 있다.

陽傘은 日本 高松塚의 것과 基本的으로 같은 것이며 부채는 輯安5塊墳의 第4號墓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

도 高松塚의 그것의 源形이다.

또 人物風俗圖에는 씨름圖와 手搏놀이의 그림도 그려져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우리의 민족 競技인 씨름의 傳統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서 現在 日本의 空手(가라테)가 安岳第3號墳과 舞踊塚의 手搏圖에서 그 始原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指摘되고 있다.

人物風俗畫에 나타나는 狩獵圖도 또 注目할 만하다.

藥水里壁畫古墳과 舞踊塚, 長川第1號墳 등의 狩獵圖들은 그 規模들이 크게 그려져 있다.

또 德興里壁畫의 狩獵의 場面은 前室의 南쪽과 東쪽 및 北쪽의 天井 下方에 連續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8명의 射手들이 山間과 樹木들의 사이를 누비며 뒤쫓아 뛰어 가면서 범, 사슴, 꿩등을 사냥하고 있는 場面을 生生하게 描寫하고 있다.

高句麗에서는 古墳壁畫들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狩獵을 通하여 馬術과 弓術의 技倆을 높임과 동시에 씩씩하고 勇敢한 氣風을 기르기 爲하여 大大的인 狩獵競技를 數 많이 組織했는데, 가을의 天祭때에 開催되는 狩

獵大會인 「國中大會」는 그 代表的인 競技大會로서 일찍부터 이름나 있다.

그와 함께 高句麗에서는 매사냥의 慣習도 옛부터 있었던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安岳第1號墳과 三室塚壁畵의 매장은 매를 날려서 꿩을 잡고 있다.

人物風俗圖에는 또 武人圖와 戰鬪圖가 많이 그려져 있다. 武人圖에는 門지기와 護衛兵 및 儀仗兵, 騎兵 등의 行列이 그려져 있으며, 戰鬪圖에는 攻城圖와 敵兵의 首級을 치는 그림도 그려져 있다.

다음으로 高句麗의 人物風俗圖에 있어서 들 수 있는 第2의 特徵은 그 雄壯함과 進取性, 그리고 優雅함과 樂天性에 있다.

高句麗時代의 氣風을 그대로 體現하고 있는 것은 畵工들인데, 그들은 雄壯 大胆하게 構圖를 잡고 精巧한 筆致로 流麗하게 그려낸 것이다.

거기에는 高句麗의 男性的인 矚矚함과 進取性이 잘 表現되어 있다.



安岳第3號墳의 墓室內部の 「地下宮殿」 그 自體의 華麗함과 雄壯한 人物風俗圖는 墓室內部の 構造와 함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感嘆을 禁치 못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特性은 安岳第3號墳의 大行列圖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壁画古墳에 共通되어 있으며, 狩獵圖에서 그 代表的인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藥水里壁画古墳과 德興里壁画古墳, 舞踊塚등의 大規模의 狩獵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高句麗 사람들의 굽힐 줄 모르는 矚矚함과 進取性, 그리고 그 霸氣를 보아 주었으면 한다.

또 壁画에 表現된 高句麗騎兵隊의 行進圖와 重武裝한 甲冑騎馬 武士의 그림에 있어서의 늠름함, 나아가서는

娯樂競技, 音樂, 舞踊 등의 그림에 있어서도 優雅함과 함께  
썩썩한 演奏와 強烈的 춤을 볼 수 있다.

高句麗壁畫의 特徵은 雄壯하고 進取的인 特質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優雅하고 溫和한 敘情性까지도 同時에  
表現되어 있는 것에 있다.

安岳第2號墳 西壁의 女人과 아이들의 그림은 부드러운  
毛皮의 두루마기를 입고 털모자를 쓴 上層階級の 女性들과  
아름답고 素朴하게 꾸민 女人들과 어린이들이  
거닐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는 靜肅과 溫和의 雰圍氣가 맴돌고 있다.

이와 같은 優雅하고 溫和한 敘情은 水山里壁畫古墳에  
이르면 壁畫에 가득히 풍겨 온다.

曲藝를 보고 있는 女主人公과 侍女들의 表情은 상냥  
하면서도 端正한 옷차림과 함께 그 氣品을 풍겨 주고  
있다. 하늘에 흐르는 구름, 그 아래를 조용히 거닐고  
있는 男性, 侍女가 들고 있는 陽傘밑을 조용히 걸고 있  
는 人物像에는 高句麗의 사람들의 特性이 참으로 男性  
的이며 力動的인 活動성과 더불어 優雅하고 女性的이며

溫和한 絳情임을 잘 表現하고 있다.

이와 같은 特徵은 安岳第2號墳에 그려져 있는 飛天의 아름다움과 優雅함에서 그 典型을 엿볼 수 있으며, 動的이며 激烈한 側面과 함께 優美하고 溫和한 側面이 야말로 高句麗의인 舞踊, 音樂임을 古墳壁畵들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 人物風俗圖에는 優雅함과 함께 高句麗人의 樂天的이며 유우머러스한 側面까지도 그려내고 있다.

對象을 유우머러스하게 그린 安岳第3號墳의 廚房의 그림은 그 代表的인 例의 하나이다.

人物風俗圖에서 볼 수 있는 第4의 特徵은 高句麗의 사람들의 獨特하고 固有한 生活慣習과 風俗이 그려져 있다는데 있다.

服裝에 있어서 高句麗的인 것의 特徵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高句麗의 사람들은 바지와 저고리를 입는데, 저고리에는 띠를 두르고 저고리의 깃과 소매의 끝, 옷자락에는 테를 두르고 있다.



이것은 高句麗 獨自의 服裝이다. 壁畫에 그려져 있는 男子의 冠帽인 「折風」같은 것도 高句麗 固有의 것이다.

藥水里壁畫古墳과 安岳第3號墳에는 연자방아가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高句麗뿐만 아니라 百濟, 新羅에도 共通되는 것이었다.

樂器를 보더라도 그 特徵이 明確하다. 4弦의 琵琶와 6弦琴의 거문고같은 것은 高句麗 獨自의 製作品이었다.

角笛이 高句麗 사람들의 牧畜生活속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누구나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高句麗의 民族競技 中에서도 朝鮮式씨름은 高句麗에서 일어난 것이다.

重武裝한 騎馬軍團을 中心으로 하여 步軍을 配置하는 高句麗軍의 編成이라든가 짧은 활과 戟(갈래진 槍) 같은 것도 高句麗 獨特의 것들이다.

이와 같이 高句麗 固有의 文化, 風俗, 慣習이 壁畫에 그려져 高句麗壁畫古墳의 人物風俗圖가 高句麗 사람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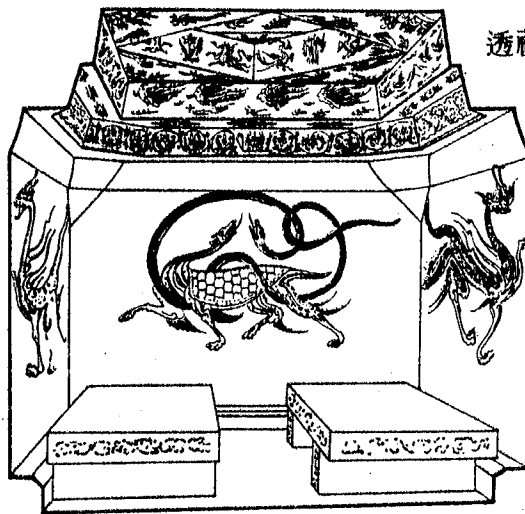
獨創的인 創造임을 보여주고 있다.

高句麗古墳壁畫에는 人物風俗圖와 함께 宗教 信仰關係의 繪畫가 있다.

이 宗教 信仰關係의 壁畫에도 高句麗的인 것의 特質이 뛰어난 藝術的形象에 依하여 表現되어 있다.

宗教 信仰圖도 主題內容이 豊富하고 多樣하며 獨自的이다.

江西大墓, 江西中墓의 壁畫들에 가득 그려져 있는 4神圖(靑龍, 朱雀, 白虎, 玄武)는 그 훌륭한 構圖와 調和, 힘찬 迫力, 華麗한 線과 色彩로 傑作中の 傑作으로 稱頌되고 있는 것이지만 高句麗壁畫의 水準높음과 그 獨自性을 멋지게 보여주는 것이다.



透視圖(江西大墓)

이 4神의 모습은 微細한 部分에 이르기까지 精密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高句麗 사람들의 4神에 대한 觀念과 豊富한 想像力과 現實世界의 動物에 대한 날카로운 觀察力에 依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高句麗사람들은 4神을 그릴때 그것이 地上世界의 動物이 아니라 天上界의 想像上의 動物이라는 것을 表示하기 爲하여 靑龍과 白虎의 발가락을 3개로 그리고, 힘차게 飛翔하는 모양을 表現하기 爲하여 불꽃形의 날개뿌리를 가슴에 그리고 큰 날개를 달아 놓았다.

또 龍과 白虎의 목에는 獨特한 띠가 감겨져 있는데 이것은 高句麗 4神圖에 固有한 것이다.

高句麗古墳 以外로는 日本의 高松塚의 古墳壁畫에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星宿圖, 人物의 服飾圖등과 함께 高句麗壁畫古墳과 高松塚과의 親緣關係를 나타내는 것이다.

高松塚古墳의 4神圖를 볼 때 高句麗 4神圖와의 共通性 및 關聯性이 매우 짙다는 것이 注目된다.

그 中에서도 靑龍의 뒷다리의 大腿部의 아랫쪽에 忍冬

唐草紋의 紋樣이 새겨져 있는데, 이와 같은 裝飾은 江西大墓의 靑龍을 비롯하여 輯安 5 塊墳 第 4 號墓의 靑龍 등에서 볼 수 있는 高句麗 4 神圖의 固有性이며 獨特한 特徵이다.

高句麗의 宗教 信仰關係의 그림에는 確實히 各種의 幻想的인 動物이라든가 人物 등이 많다.

그러나 그것들은 高句麗 사람들의 想像力이 豊富하고 奇拔했다는 것을 立證해 주는 것이다.

잘 그려진 鳳凰과 麒麟, 天馬, 나아가서는 발과 날개가 달린 물고기, 머리가 人間이고 몸은 새와 같은 怪物, 머리가 소인데 몸은 새로 된 怪獸等等 多樣한 幻想的인 動物들이 描寫되어 高句麗 사람들의 信仰의 世界와 豊富한 想像力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불을 손에 들고 있는 神仙과 旗를 들고 있는 神仙, 책을 읽는 神仙, 八卦를 보는 神仙 및 妖精 등이 그려져 있다.

高句麗의 宗教 信仰關係의 그림의 特徵도 高句麗의 画師들이 살아온 高句麗의 社會와 그 現實生活에서 생겨

난 것들이다.

画師들은 人物風俗画를 그릴 때와 마찬가지로 高句麗의 現實에서 出發하여 高句麗的인 氣質과 風格을 가지고 그렸다.

이것이 高句麗壁畫의 特徵을 낳을 수 있었던 基本的인 要因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高句麗壁畫의 人物画, 動物画, 風景画, 4神圖등 힘차고 또 纖細한 高句麗壁畫의 特徵은 高句麗的인 것의 獨自性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高句麗繪畫의 水準의 높음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高句麗壁畫 画風의 特徵을 본다면 그 第1은 힘찬데 있다.

그 第2는 纖細하고도 優雅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画風上의 特徵이 모두 表現된 壁畫로서는 後期에 속하는 4神圖일 것이다.

靑龍, 白虎의 力動感에 넘친 構成과 玄武, 朱雀등의 빼어난 構圖, 힘차면서 柔和한 各種의 線과 鮮明하고 아

름다운 色이 調和를 이룬 後期 4神圖는 高句麗壁畫를 代表하는 것이다.

4世紀에서 7世紀에 걸친 것으로 傳해지고 있는 壁畫는 다른 나라에도 적지 않지만, 約 400年동안 連綿히 繼續적으로 傳承되고 發展되면서도 壁畫內容의 豊富함과 藝術的水準의 높음을 維持해온 것은 高句麗古墳의 壁畫 뿐이다.

高句麗는 隣接諸國은 말할것도 없이 멀리 西域諸國과 의 交易을 深化시키면서 우리民族의 文化發展史上 매우 重要한 位置를 차지해 왔을 뿐 아니라 東方文化의 發展에 크게 寄與한 것이다.

古 墳 壁 畫

## 安岳第3號墳 - 4世紀中葉

高句麗사람들은 死後에 있어서도 靈魂이 살아 남아 生前과 마찬가지로 活動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 때문에 墓室內를 地上生活의 樣式 그대로 만들었다.

安岳第3號墳의 墓室은 羨室, 前室, 東西의 兩側室, 後室, 廻廊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雄壯한 建造는 마치 地下宮殿을 想像케 한다.

天井은 安定感과 調和感을 주기 爲하여 一連式天井으로 되어 있다.

### ○ 王

絹服에 흰 二重冠帽를 쓴 主人公은 高句麗의 王이다.

高句麗에서는 王만이 이 白絹으로 짜여진 二重의 이른바 白羅冠을 使用한다.

王은 臣下들로 부터 報告를 듣고 또 下問하여 따지기도 한다. 身分上의 差異에 따라 人物의 크기가 다르



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位階別 畫法이라 稱하여 畫面의 人物이 大小로 다르게 그려지는 것이다.

○ 墓室의 內部

○ 帳下督

王과 王后의 畫像이 있는 西側室의 入口 左右에는 護衛武官이 劔을 짊고 侍立해 있다.

이것은 그 左側의 武官인데 그의 職位가 帳下督이라는 것을 朱色으로 表示하고 있다.

또 그 頭上에는 그의 經歷을 밝히고 있는 墨書가 있다.

「永和十三年十月戊子朔廿六日

癸丑使持節都督諸軍事

平東將軍撫夷校尉樂浪

相昌黎玄菟帶方太守都

鄉候幽州遼東平郭

都鄉敬上里冬壽字

口安年六十九斃官」

「永和3年(357) 10月戊子朔 26日 癸丑에 使持節 都督諸軍事, 平東將軍, 護撫夷校尉이며, 樂浪相, 昌黎, 玄菟, 帶方太守이며 幽州遼東郡 平郭縣都鄉敬上里의 사람인 冬壽는 字가 口安이고 69歲에 生涯를 마쳤다」

이 墨書는 燕으로 부터 高句麗로 亡命해온 冬壽가 高句麗의 各官職을 歷任하고 357年 10月 26日에 死亡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同時에 이 墨書는 이 人物圖에 依하여 表示되어 있는 바와 같이 冬壽가 高句麗에서 侍從武官 卽 帳下督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 廚房

○ 방앗간

踏碓(방아)을 밟는 女人.

옛날의 朝鮮農村에 흔히 있는 情景으로서 朝鮮特有的 것이다.

○ 우물

女人 「阿光」은 독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것도 朝鮮農村에서 지난날에 볼수 있었던 風景이다.

○ 마굿간

○ 외양간

○ 角笛

高句麗사람들이 즐기는 樂器의 하나이다.

○ 手搏圖

手搏戲의 오래 된 歷史를 말해주는 그림이다. 今日的 여러가지 格鬪技와 拳術, 跆拳道 등은 이 高句麗의 手搏戲에서 由來된 것이다.

○ 假面舞

男子 舞踊手는 假面을 쓰고 있다. 高句麗사람들은 假面舞를 즐겼으며, 管樂, 弦樂에 맞추어 춤춘다.

○ 儀仗兵〈寫眞 1〉

旗手는 文官의 服裝을 하고 있지만 斧鉞手와 傘手는

武官의 服裝을 하고 있다. 儀仗兵들도 그 任務에 따라 文·武의 區別이 되어 있다.

○ 擔鍾圖

○ 騎馬鼓와 吹奏樂隊圖

○ 行列圖

○ 行列圖(模寫)

높이 2미터, 길이 10미터나 되는 廻廊의 壁面가 득이 그려져 있는 大行列圖이다.

여기에는 行列의 先頭隊列과 中央隊列의 一部가 보이는데, 駕輦에 탄 王과 王을 護衛하는 文武高官, 樂隊, 儀仗兵 및 武士등 250名이 登場한다. 壯嚴한 軍樂에 맞추어 嚴肅하게 行進하는 行列의 雄壯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壁畫의 雄壯한 內容과 規模의 雄大함에는 高句麗人의 大凡한 氣象과 霸氣가 反映되어 있다.

이 行列속에 旗手들이 있는데 그들은 行進할 때 王

의 駕輦 앞에서 王의 身分을 나타내는 旗를 들고 선  
다.

安岳第 3 號墳의 行列圖의 標識旗에는 「聖上幡」의 文  
字가 黑바탕에 朱色으로 쓰여져 있다.

聖上은 王을 意味한다. 따라서 이 旗는 主人公이 王  
임을 알리는 御旗인 것이다.

### 安岳第 1 號墳 — 4 世紀末

- 殿閣圖
- 人頭牛
- 天馬·飛魚圖
- 麒麟圖

### 德興里壁畫古墳 — 408 年

羨道, 前室, 玄室로 되어 있는 德興里壁畫古墳의 墓室

은 石築으로 되어 있다.

壁畫는 그 石灰칠 위에 人物風俗畫를 그린 것이다.

○ 墓主 鎮에 伺候하는 幽州 13 郡太守〈寫眞 2〉

○ 幽州 13 郡 太守

이 壁畫의 앞에는 13 郡이 幽州에 속하며 州의 所在地가 廣薊임을 밝히는 墨書가 있다.

「叱十三郡屬幽州部彰七十五州

治廣薊今治燕國去洛陽二千三百

里都尉一部并十三郡」

幽州에 屬하는 13 郡의 太守 또는 內史들이 幽州刺史인 鎮에 伺候하여 人事 또는 報告를 하는 場面이다.

上段은 燕郡, 范陽, 魚陽, 上谷, 廣寧, 代郡의 6 郡太守들이 서고 下段에는 北平, 遼西, 昌黎, 遼東, 玄菟, 樂浪, 帶方太守들이 서 있다.

모두 鎮을 向하여 一定의 間隔을 維持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動作을 始作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13 郡太守들의 눈이 生生하게 그려져 있는것 만으로도  
壁畫의 뛰어난 描寫力을 볼수가 있다.

○ 墓主

鎮은 黑色의 內冠에 青色의 二重冠帽를 쓰고 깃과  
소매끝에 테두리를 한 褐色두루마기를 着用하고 있다.  
鎮이 쓰고 있는 冠은 高句麗의 大臣들이 쓰는 青羅冠  
이다.

○ 主人公鎮의 墓誌

前室北壁에 主人公에 관한 墓誌가 記錄되어 있다.

□□郡信都彰都鄉□甘里

釋加文佛弟子□□氏鎮仕

位建威將軍國小大兄左將軍

龍驤將軍遼東太守使持

節東夷校尉幽州刺史鎮

年七十七薨國隊永泉十八年

太歲在戊申十二月辛酉朔廿五日

乙酉成遷移玉柩周公相地

孔子擇日武王選時歲使一

良葬送之<sup>後</sup>富及七世子孫

番昌仕宦日遷位至侯王

造墳萬功日熟牛酒穴米粢

不可盡擯且食監政食一椽記

之後世寓寄無疆

墓誌에서 主人公의 이름, 故鄉, 經歷, 葬禮日 등이 記錄되어 있다. 主人公의 이름은 鎭, 그의 故鄉은 信都이다. 信都는 “高麗史” 地理誌에 의하면 今日的 博川, 雲田地方이다. 鎭은 建威將軍에서 始作하여 國小大兄, 左將軍, 龍驤將軍, 遼東太守등을 얻어 使持節東夷校尉, 幽州刺史의 官職을 歷任하였다. 그가 歷任한 두번째의 國小大兄은 高句麗에만 있는 固有의 官職이다. 그가 高句麗 第19代의 廣開土王(好太王)의 臣下이고, 年齡 77 歲로 死亡하여 永樂 18 年(408) 12 月 25 日 여기에 매장된 것이다.

※ 여기보이는 永樂이라는 年號는 廣開土王이 獨自的으로 使用한 高句麗의 年號이다. 이 墓誌銘을 통하여 高句麗에도 幽州가 있으며, 그의 版圖가 遼河를



건너서 실로 廣大하였다는 극히 重要的 事實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또 古墳의 築造絶對年代와 被葬者인 主人公의 이름이 判明된 것은 壁畫古墳의 編年設定의 基準의 問題를 包含하여 高句麗 壁畫古墳研究에 있어서 큰 意味를 갖게 되었다.

### ○ 行列圖

行列의 先頭隊列中央에 弩弓을 높이 들고 있는 乘馬人이 있다. 거기에는 “薊彰令掇幹弩(薊県令이 弩弓을 높이 들고 있다)”라는 說明文이 있다. 幽州의 所在地薊의 県令이 行列의 先頭에서 갈案内를 하고 있기 때문에 幽州刺史의 行列임에는 틀림없다.

### ○ 陽光〈寫眞 3〉

前室東쪽 天井의 거의 中央에 그려져 있는 불에 타지 않는 神秘의 새. 거기에는 “陽燄之鳥履火而行”(陽光의 새는 불을 밟고 간다)라는 說明이 記入되어 있다.

○ 狩 獵

前室의 南쪽, 東쪽, 北쪽 天井의 밑에 連續적으로 그려져 있다.

○ 天 馬

前室北쪽의 天井에 그려져 있다. 天馬에 관한 傳說이 옛부터 高句麗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牽牛와 織女

前室 南쪽의 天井에 그려져 있는 두사람은 가마귀, 까치가 놓은 다리를 건너서 7月七夕에 年 1回相逢을 樂으로 한다. 牽牛와 織女에 관한 七夕傳說은 수없이 많으나 織女에 개가 따르고 있는 것은 처음이다.

○ 女主人公의 牛轎車

前室에서 玄室로 가는 通路 東壁에 그려져 있다.

○ 流 鏢馬

朝鮮에서는 馬射戲이라 부르고 있다. 高句麗人들은 乘馬와 활쏘기를 즐겨하였으나 그의 具體的인 競技場面을

보여주는 것이 最初이다. 玄室西壁에 그려져 있다.

○ 蓮花, 七寶行事의 그림

玄室東壁에 그려져 있다.

**藥水里 壁畫古墳 - 5世紀初**

方位神인 4神은 天空의 28宿과 連動하고 있다.  
즉, 天上의 星座中 28宿을 四方에 일곱개씩 나누고,  
그 나누어진 별(星)의 모양을 네개의 神獸에 의해서 象  
徵하였다. 즉 東에는 靑龍, 南에는 朱雀, 西에는 白虎,  
北에는 玄武를 놓았다.

高句麗人들의 天과 星辰, 4神에 관한 信仰心の 깊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藥水里 壁畫古墳의 4神圖는 오래된 時代의 代表的인 4神圖이다. 玄武의 거북과 뱀은 리얼하기는 하나 朱雀도 또한 實際의 닭과 類似하게 그려져 있다. 靑龍과 白虎는 가늘고 기나 범이나 野生의 짐승과 같다.

○ 主人公夫婦, 玄武와 北斗七星

- 달과 白虎
- 朱雀과 昴星
- 太陽과 靑龍
- 狩獵圖

高句麗人들은 乘馬와 활쏘기를 즐겼는데 그것을 잘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 狩獵은 乘馬와 활쏘기를 熟練시키기에 適切한 機會였다. 高句麗에서는 春秋에 國家的 規模의 狩獵競技大會를 가졌다. 藥水里 壁畫古墳의 狩獵圖는 많은 사람이 參加하는 大規模的인 狩獵의 競技場面을 再現하고 있다.

- 마굿간
- 외양간
- 守衛圖
- 行列圖

壯嚴한 行列, 세 개의 壁에 걸쳐 놓고 그린 大畫幅은 高句麗의 대범한 氣象과 힘센 氣魄을 잘 나타내고 있다. 行列의 先頭, 中央, 後尾등 모두가 當時의 行列制度

를 밝히는 基準이 될뿐 아니라 騎馬武士의 隊列은 큰 注目을 끈다.

○ 騎馬武士의 隊列

大安里 第 1 號墳— 5 世紀 中葉

○ 男子群像

水山里 壁畫古墳— 5 世紀 後半

○ 人物圖(全體圖)

○ 曲藝圖와 主人公夫婦

○ 女人群像

双楹塚— 5 世紀末

○ 主人公과 臣下

○ 供養圖

○ 主人公의 室內生活

主人公夫婦가 平床에 편히 앉아 있다. 平床앞에는 벗

어놓은 신발이 있다. 平床이나 座床에 앉는 慣習은 室內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風習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 安岳 第2號墳—5世紀末~6世紀初

- 女와 아이들〈寫眞4〉
- 門衛武人
- 門衛武人
- 飛天

柔和한 線과 色彩로 그려진 飛天의 아름다운 얼굴과 늘신한 身體는 실로 매력적이다.

이 繪畫는 高句麗 壁畫中에서도 가장 훌륭한 作品中의 하나로서 잘 알려져 있으나 高句麗 畫風은 힘과 氣魄과 더불어 纖細하고 優雅한 側面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 湖南里 4神塚—5世紀末~6世紀初

- 青龍

- 朱 雀
- 白 虎
- 玄 武

### 眞坡里 第4號墳—6世紀 前半

#### ○ 星宿圖

天井中央에 그려져 있다. 28宿을 金箔으로 박어 빛이 빛나는 星座을 表現하고 있는 高句麗 天文圖의 代表作 中の 하나이다. 現在 많은 金箔은 剝落되어 있으나 그 의 痕跡은 明確하게 남아있다.

- 連續文圖
- 蓮花文圖
- 蓮 池

### 德花里 第2號墳—6世紀

#### ○ 星宿圖〈寫眞 5〉

龜甲모양의 日, 月, 星辰을 그린 28宿을 그려놓고, 各

星座에 該當하는 星宿名을 記入하고 있다. 壁畫의 一部가 剝落되었으나 貴重한 天文圖로서 意義가 크다.

### ○ 松

花雲과 花吹雪은 旋風에 날리고, 波濤와 같은 물결이 흐르고 있다. 높이 솟은 두그루의 소나무도 생생한 새잎을 나부끼고 있다. 불만한 傑作이다. 闊達한 筆致로 나무가지를 그리고, 輪郭을 그리지 않고 直接 彩色으로 對象을 表現하는 技法인 沒骨法에 의해서 소나무 잎을 形象한 이 壁畫는 6世紀後半의 東洋畫의 風景畫가 到達한 圓熟한 藝術的 境地를 遺憾없이 보여주고 있다.

## 眞坡里 第1號墳—6世紀 後半

○ 花 雲

○ 太陽과 달



## 江西大墓 - 7 世紀

### ○ 青龍

氣를 뿜하면서 飛翔하는 青龍의 힘찬 迫力.

高句麗사람들은 스스로의 힘과 氣慨를 즐겨 青龍과 白虎에 빌어 그것들을 그렸다.

青龍의 氣象은 이 나라 사람들의 雄渾한 氣質의 反映이기도 하다.

### ○ 玄武 < 寫眞 6 >

高句麗壁畫의 藝術的水準을 遺憾없이 보여주는 代表作.

거북과 뱀이 서로 엉키는 모습을 神秘롭게 그렸다.

뛰어난 構圖에 線과 彩色을 巧妙히 살려 神獸의 運動感과 實在感을 멋지게 表現한 傑作.

### ○ 忍冬唐草紋樣

## 江西中墓 - 7 世紀

### ○ 白 虎

가슴과 4 개의 다리와 발톱, 全身에 넘치는 힘은 躍動하며 살아 있는것 같다. 東洋畫의 特徵은 「氣韻生動性」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 ○ 朱 雀〈寫眞 7〉

朱雀도 또 空想의 神獸이다. 아름답고 神秘로운 힘을 가진 理想의 새를 즐겨 그린다. 千數百年前에 時間을 超越하여 表現된 色彩는 지금도 生生하다.

### ○ 朱 雀

## 角抵塚 - 4 世紀末

### ○ 主人公의 生活圖 (模寫)

### ○ 씨름 〈寫眞 8〉

朝鮮式 씨름의 源流는 高句麗에서 찾을 수 있다.

### 舞踊塚－4世紀末

- 手搏戲圖〈寫眞9〉
- 彈琴神・白虎圖(模寫)
- 朱雀圖(模寫)
- 乘鶴神圖(模寫)
- 群舞(模寫)
- 狩獵〈寫眞10〉
- 迎賓圖〈寫眞11〉

### 三室塚－5世紀初

- 行列圖(模寫)

- 飛天圖(模寫)
- 攻城圖(模寫)

### 長川第1號墳－5世紀中葉

- 飛天圖(模寫)
- 佛教圖(模寫)
- 舞樂圖(模寫)
- 狩獵과 野遊會(模寫)

### 輯安5塊墳 第4號墓－6世紀

- 乘鶴神圖(模寫)
- 燧神・대장神圖(模寫)
- 日神・乘鳳凰圖(模寫)

○ 黃龍圖〈寫真12〉

○ 青龍圖〈寫真13〉

### 輯安5塊墳 第5號墓—6世紀

○ 日神・月神圖(模寫)

○ 蓮花圖(模寫)

○ 舞踊神・吹笛神圖(模寫)

○ 龍圖(模寫)

○ 吹奏大角神・吹簫神圖(模寫)

○ 製輪神(模寫)

○ 打鼓神・彈琴神圖(模寫)

○ 朱雀(模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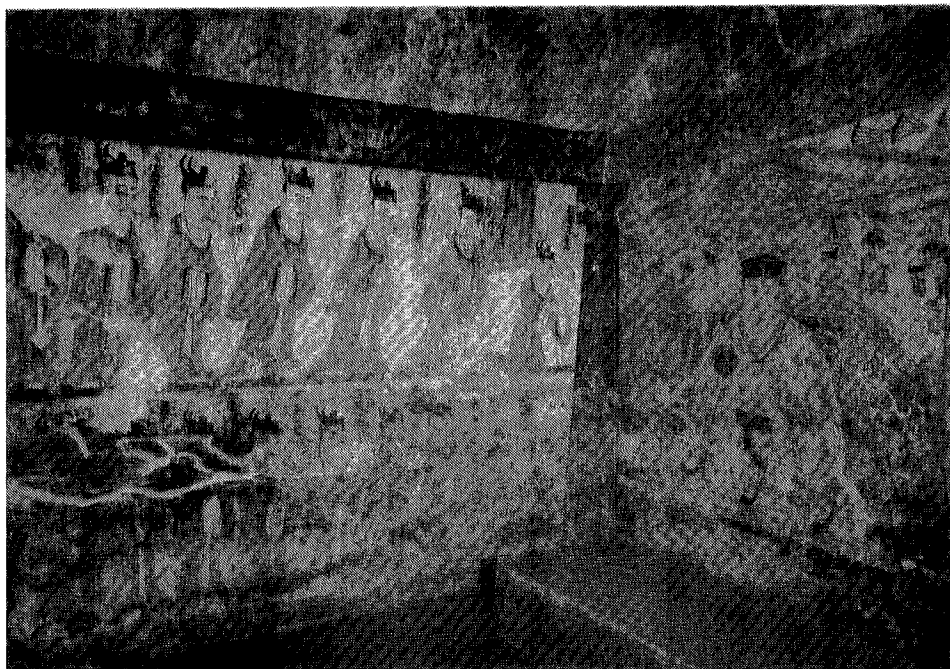
○ 農業神(模寫)

〈寫眞1〉



儀仗兵

〈寫眞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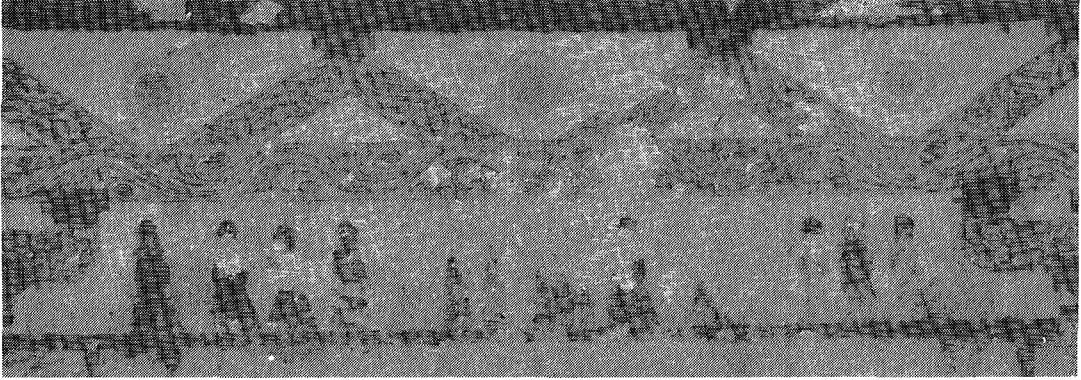
墓主鎮에 何候하는 幽州13郡太守

〈寫眞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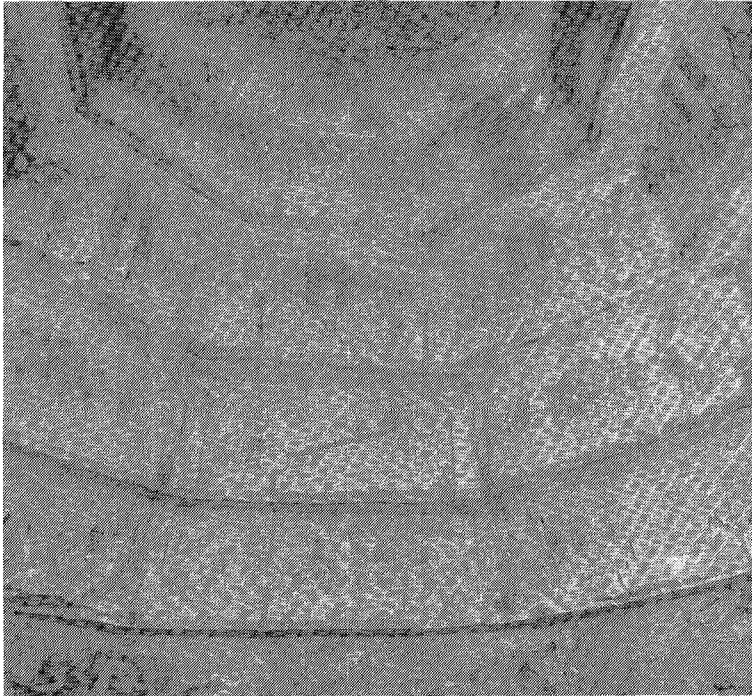
陽光

〈寫眞 4〉



女와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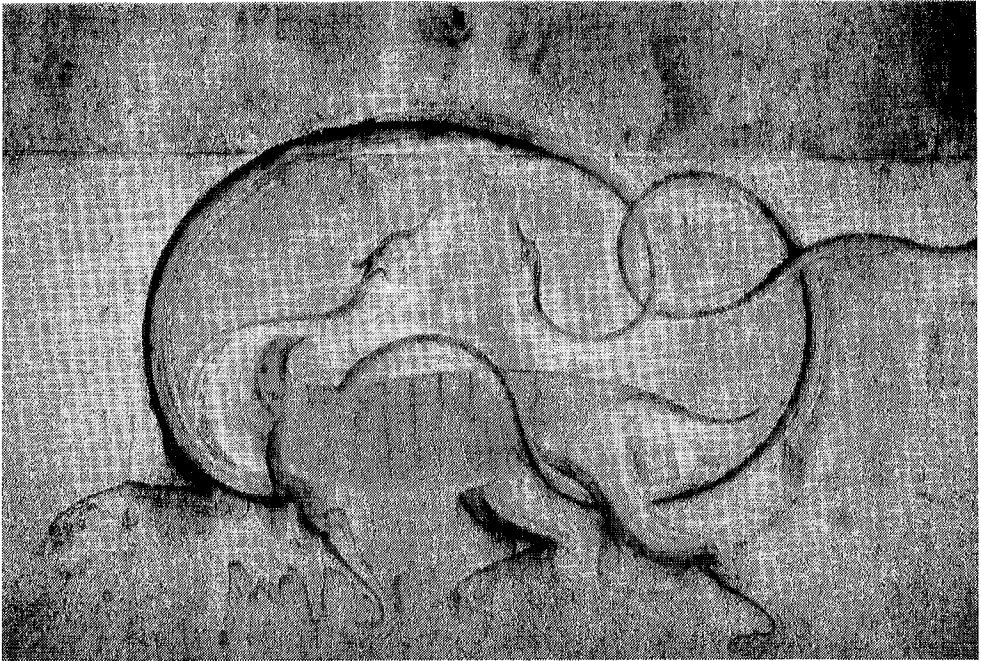
〈寫眞 5〉



星宿圖



〈寫眞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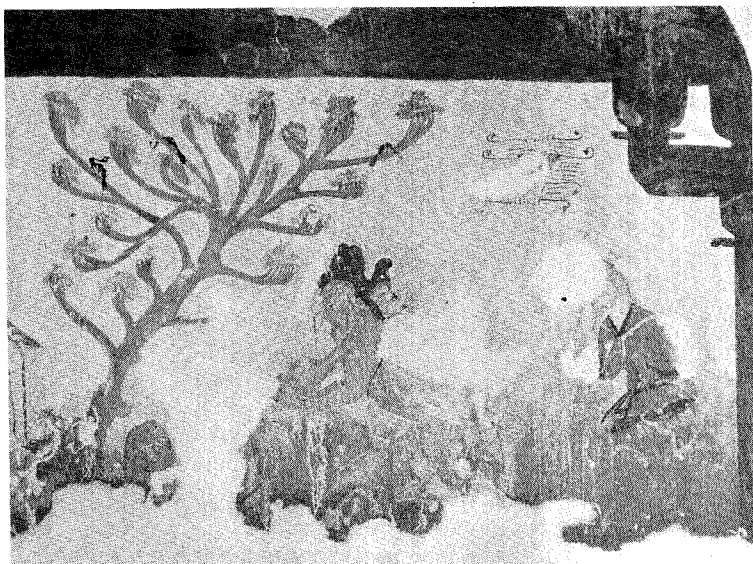
玄 武

〈寫眞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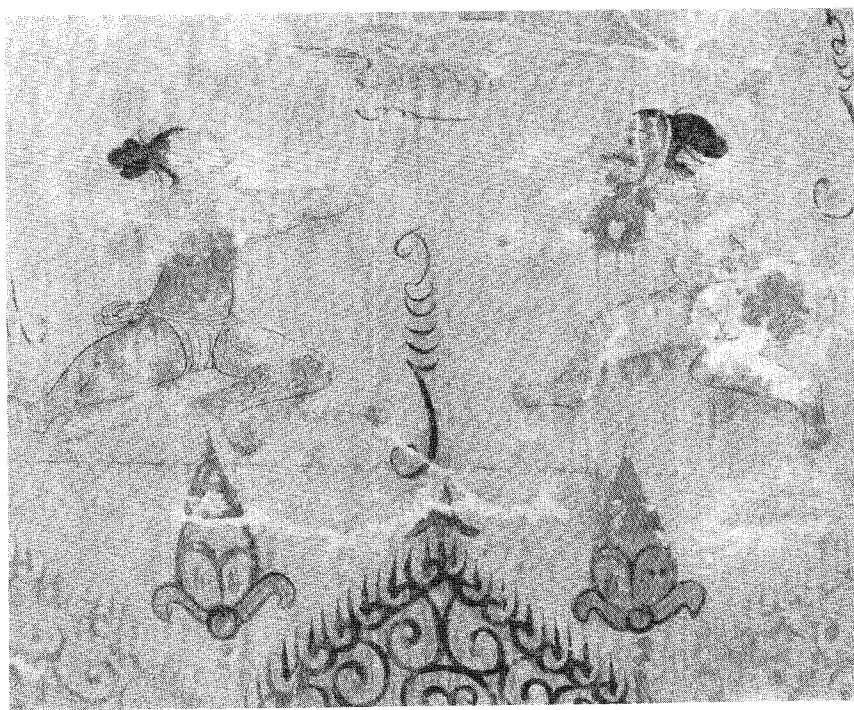
朱 雀

〈寫眞8〉



相撲

〈寫眞9〉



手搏戲圖

〈寫真 10〉



狩獵

〈寫真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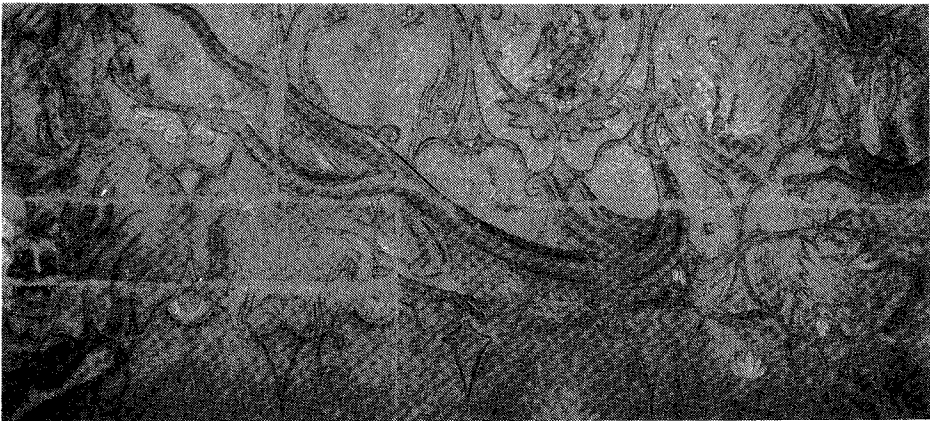
迎賓圖

〈寫真 12〉



黃龍圖

〈寫真 13〉



青龍圖

遺跡・出土品・復元品

○ 安鶴宮〈寫眞 14〉

年代：427 ~ 586 까지의 首都城

位置：平壤市大城區域 安鶴洞

高句麗의 王宮이다. 427 年에 都邑을 輯安으로 부터 平壤으로 遷都, 586 年 長安城으로 首都城이 옮길 때까지의 期間에 存續하였다.

中央에 2 層으로 되어 높이 서있는 建物은 王이 國家의 政治를 다스리는 內殿이다. 그 앞의 2 層建物은 對外關係의 國事를 다스린 外殿이다. 맨 北쪽에 있는 宮殿은 寢殿이며, 東쪽에 있는 宮殿은 太子宮이다. 總 39 萬平方미터의 敷地에 造營된 安鶴宮의 雄姿는 高句麗國家의 強大性和 뛰어난 建築術의 水準을 잘 말해주고 있다.

○ 大城山城〈寫眞 15〉

○ 東明王陵과 定陵寺址〈寫眞 16〉

年代：5 世紀初

位置：平壤市力浦區域 戊辰里

高句麗國家의 始祖王인 東明王(朱蒙)의 墳墓와 그 勅願寺이다. 東明王陵은 427年의 平壤遷都의 前後에 移葬된 것으로서 定陵寺는 東明王陵의 陵寺이다.

○ 金剛寺塔 < 寫眞 17 >

○ 廣開土王陵碑 < 寫眞 18 >

所在地：中國吉林省輯安縣 通溝

建立年度：414年(長壽王 2年)

높이：6.34미터

4面의 幅：1.43～1.90미터(1963年 調査)

石材：凝灰岩(臺石은 花崗岩)

字數：44行에 各行 41字씩(一部 欠字)

이 碑는 現存의 東方最大의 石碑로서 高句麗 長壽王이 父王인 廣開土王(391～412年 在位)의 功勳·業績을 後世에 길이 傳하기 爲하여 세운 것이다.

碑文의 內容은 크게 3段으로 構成되어 있다.

第1段(1面 1～6行)에는 高句麗의 始祖 鄒牟王(東明王)의 來歷과 建國의 經緯, 그리고 그 17世孫인 廣

開土王(正式名은 國崗上廣開土境 平安好太王)의 生涯와 治績과 葬禮日 및 碑石建立의 目的에 대하여 記述되어 있다.

第2段(1面 7行~3面 8行)에는 395年, 396年, 398年, 400年, 404年, 407年, 410년에 王이 親征 或은 軍을 派遣하여 碑麗, 百濟, 息慎, 倭, 東夫餘등과 싸워 勝利하여 領土를 크게 넓힌 事實들이 記述되어 있다.

第3段(3面 8行~4面 9行)에는 墓지기人煙戶(王陵을 지키는 義務를 지닌 民戶)의 構成과 維持對策에 관한 王命-法令을 記錄하였다.

이 巨大한 陵碑는 高句麗人의 雄渾한 氣慨를 잘 나타내고 있다. 또 이 陵碑는 4世紀末~5世紀初를 前後한 時期의 高句麗史를 비롯하여 東亞세아史의 研究에 있어서 大端히 貴重한 資料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그 嚴正하고 圓熟한 隸書字體는 書藝家의 높은 評價를 받고 있다.



○ 高句麗瓦〈寫眞 19〉

出土地：平壤一帶

高句麗各地에서 數 많이 出土된 것인데 여기에 展示된 瓦는 安鶴宮跡과 定陵寺跡, 大城山 등에서 나온 것들이다.

○ 蓮花紋丸瓦 瓦當〈寫眞 20〉

○ 怪面紋丸瓦 瓦當〈寫眞 21〉

○ 平瓦 瓦當〈寫眞 22〉

○ 蓮花紋丸瓦 瓦當〈寫眞 23〉

○ 磚〈寫眞 24〉

○ 定陵寺出土의 刻字土器

定陵寺의 性格을 푸는 端緒가 된 刻字土器, 仔細히 보면 「定陵」, 「陵寺」, 「高句麗」로 읽을 수 있는 字銘이 陰刻되어 있다.

「定陵」이란 東明王陵을 말하는 것이며, 「陵寺」는

이 建築址가 東明王陵에 關聯되는 佛寺임을 意味하고 있다.

「高句麗」라는 銘은 이 佛寺가 高句麗의 것임을 나타낸다.

○ 日像透彫 金銅裝飾〈寫眞 25〉

眞坡里 7 號墳 出土의 이 아름다운 透彫 裝飾品은 太陽을 象徵하는 三足鳥를 圓內에 놓고 그 周圍에 流雲紋으로 이은 2, 3마리의 새를 配置하였다. 枕狀의 이 裝飾品은 下部에 띠가 있어 그것이 冠帽의 裝飾品이 아닌가 推測케 한다.

이 透彫 裝飾品은 高句麗 金屬工藝의 纖細하고 높은 藝術的境地를 보여주는 代表作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 소나무型 金銅裝飾〈寫眞 26〉

○ 火炎紋透彫 金銅冠〈寫眞 27〉

○ 永明寺 石製 獅子像

出土地：平壤市中區域 牧丹峰 永明寺址

高句麗 石製彫刻의 遺物例는 많지 않다. 이것은 高句麗 石製彫刻의 代表作의 하나로서 獅子가 웅크리는 모습에 實感이 있다. 獅子像의 높이는 約 85 cm이며 내뺨은 가슴과 힘차게 뻗어 나가고 있는 다리, 크게 벌린 입 등 사나운 獅子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 刻字城石〈寫眞 28〉

時期：高句麗

出土地：平壤市

高句麗 平壤城의 城壁에 刻字城石이 박혀 있었다. 이 城石에는 築城工事의 責任을 맡았던 人物名과 그 城壁의 길이 및 擔當區域 등이 記錄되어 있어 高句麗 平壤城을 築成한 狀況을 어느 程度 傳해주고 있다.

여기에 展示한 第1의 城石에는 「丙戌十二月中漢城下後部小兒文達節自此西行涉之」(丙戌十二月에 漢城下後部의 小兒 文達이 여기서 부터 西北方으로 築造해 나갔다)고 되어 있어, 이 丙戌年은 長安城(平壤城)을 쌓은 時期인 丙戌年으로서 566年에 該當된다.

第2의 城石은 1960 年에 平壤市 中區域 南山洞에서 發見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었다.

「卦婁蓋切小兄加群自此東廻口里四尺治」(卦婁蓋切小兄의 加群이 여기서 東으로 돌아서 口里四尺을 쌓았다) 卦婁는 高句麗 貴族集團 五部の 하나인 桂婁部の 뜻이다. 刻字 城石은 高句麗人이 築城에 얼마나 큰 힘을 들이고 緻密한 計劃下에 推進하여 갔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 光 背〈寫眞 29〉

出土地：平川里

「永康七年歲次口口

爲亡母造彌勒尊像

福令亡者神昇

慈氏三會

之 勿悟无生 究竟必昇

提若有罪 願一時消滅

隨喜者等同此願」

銘文에 따르면 이 光背의 佛像은 누군가가 亡母의

冥福을 빌기 爲하여 만든 것이다. 이 佛身은 光背에서 分離되어 現在 南韓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날이 하루라도 빠르기를 切望한다.

○ 金剛佛(對)

出土地：大城山城

1500 年前的 佛像

큰것은 金銅製의 男子像. 右手에 錫杖을 잡고 左手에는 如意珠를 올려 놓았다. 蓮座의 밑에는 獅子가 두 눈을 부릅뜨고 다리를 벌리고 있다.

작은 것은 前面이 純金이고 背面은 純銀인 女子像이다. 兩像의 豊富한 質感과 嚴肅한 表情. 이것은 高句麗 美術의 特徵의 하나이다.

○ 金字寫經

出土地：大城山城

1500 年前的 高句麗의 製紙技術을 보여주는 金字寫經. 植物性 纖維質의 종이다.

判讀된 文字는 1050 字인데 그中에는 「釋迦牟尼」,

「如來」, 「菩薩」등의 諸佛의 이름과 「沙婆」, 「菩提」 「歡喜」, 「苦惱」등 佛敎에서 자주 쓰이는 文句들이 있다.

文字의 內容과 行宮地 出土라는 點에서 보아 高句麗 王室에서 保管하고 있던 『妙法蓮華經』인 것으로 생각 된다.

#### ○ 天象列次分野之圖

高句麗天文學의 發展水準에 대해서는 高句麗古墳 壁畫에 그려진 天文圖를 보아도 알 수 있지만, 當時의 石刻天文圖의 拓本인 天象列次分野之圖에 따르면 한층 더 分明하다.

高句麗의 石刻天文圖는 戰亂中에 喪失했는데 그 拓本 한장이 남아 있어서 1395 年에 再發見되어 그에 본따서 만들어진 것이 이 天象列次分野之圖이다. 거기에는 282 個의 星座圖와 1,467 個의 별들이 그려져 있고, 그것들은 365 度 4 分の 1 로 나뉘어진 天球上에 正確하게 定位 되어 있다.

## ○ 갑옷騎馬武士

高句麗의 重武裝騎馬兵이다. 騎士가 甲冑를 着用했을 뿐만 아니라 말도 馬甲과 馬冑로 덮여 있다.

이와같은 甲冑騎馬武士는 高句麗軍團의 核心이다. 甲冑騎馬武士의 그림은 藥水里壁畫古墳, 安岳第3號墳, 大安里第1號墳, 双楹塚, 三室塚, 八清里壁畫古墳등에 그려져 있다.

그들 그림은 戰鬪에서 勇名을 떨친 高句麗武人の 늠름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

## ○ 兵士像〈寫眞 30〉

## ○ 男子服飾

高句麗 男子服飾의 基本은 高句麗의 自然氣候條件과 高句麗人의 趣味와 生活樣式에 맞게끔 저고리, 바지, 外衣, 帽子, 신발, 脚絆, 套袖등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띠를 단단히 맨 男子의 日常의 服裝은 勞動이나 武術訓練에 便利하였다.

高句麗 男子는 必要에 따라 脚絆이나 套袖를 着用했

는데, 이것도 尙武의 生活氣風에 걸맞는 것이다.

男子服飾에는 이 밖에 禮服과 舞臺服, 官服등도 있었다. 그리고 옷감이나 色彩, 무늬, 冠帽등은 身分에 따라 一定의 區別이 있었다.

### ○ 女子服飾

女子의 基本服飾은 저고리, 치마, 바지, 外衣, 帽子, 그리고 신발등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勞動과 같은 活動的인 行動을 할 때는 저고리와 바지에 띠를 매었는데 日常時에는 바지 위에 치마를 입는 것이 慣習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禮儀를 지킬 때나 추울 때는 外衣를 걸쳤다.

치마는 女子만이 입었는데 주름잡힌 것이 一般的이다. 多樣한 色彩로 아름답게 裝飾된 색동치마는 그것이 高度化된 것이다.

저고리의 깃과 소매 끝에는 아름다운 色과 모양으로 꾸민 襪을 달았다. 이와 같은 襪이 달린 저고리와 색동치마를 입은 高句麗女性의 服裝은 매우 곱고 印象的인 것이었다.



## ○ 橫 笛

橫笛을 부는 場面은 江西大墓를 비롯하여 몇몇 古墳의 壁畫에 보인다.

高句麗에서는 이 橫笛을 天音을 내는 樂器라 하여 神聖視하고 주로 神仙이 부는 樂器로서 그렸다.

優雅한 管樂器 中에서도 橫笛은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였다.

## ○ 角 笛

소나 羊의 뿔로 만든 角笛이다.

高句麗古墳의 壁畫에는 角笛을 부는 場面이 그려져 있으며 大角, 雙口大角, 小角등이 보인다.

壁畫에서 角笛을 부는 人物은 神仙을 除外하고는 모두 젊은 男子들인데 이런 것은 角笛이 그들에게 맞는 樂器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高句麗 管樂器들 中에서도 가장 큰 比重을 차지했던 氣魄이 찬 音을 내는 樂器이다.

### ○ 簫

長短의 竹筒 여러個를 橫으로 나란히 結合한 管樂器이다. 安岳第3號墳의 行列圖에 馬上에서 이것을 부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것을 보면 兩손으로 그 左右의 下部를 쥐고 水平으로 된 上部에 口를 대어 있는데 이는 마치 하모니카를 부는 것과 같다.

### ○ 腰 鼓

鼓를 끈으로 어깨에서 배 앞으로 매달고 左側은 채로 치고 右側을 손으로 친다. 安岳第3號墳 前室의 南壁과 輯安5塊墳의 第4號墓에 그것을 치는 場面이 그려져 있다.

그 모양은 今日的 朝鮮에서 腰鼓(長鼓)를 치는 것과 같으며, 그것은 鼓의 옛 起源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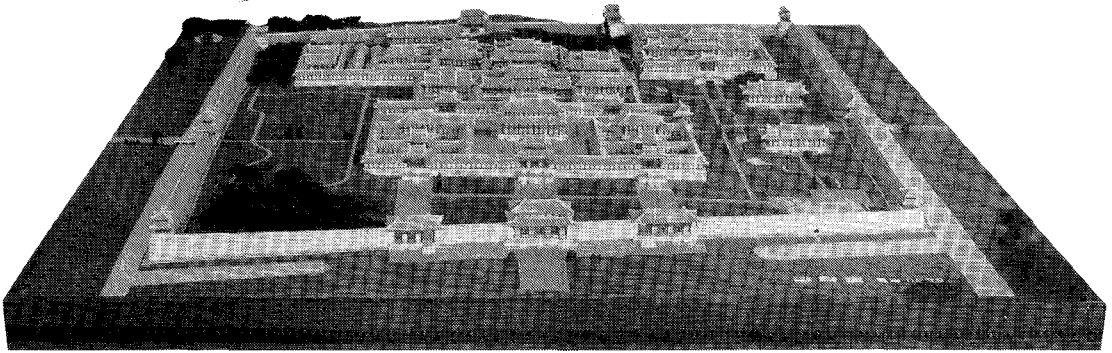
### ○ 各種의 북

북은 씩씩하고 勇敢한 高句麗人의 性格에 맞는 樂器의 하나로서 高句麗打樂器들 中에서 第一의 位置를 차지한다. 또 種類도 많다.

古墳壁畫에 볼 수 있는 것만도 懸鼓와 鼗鼓, 建鼓, 擔鼓, 腰鼓 등 여러 種類가 있으며 狀況에 따라 使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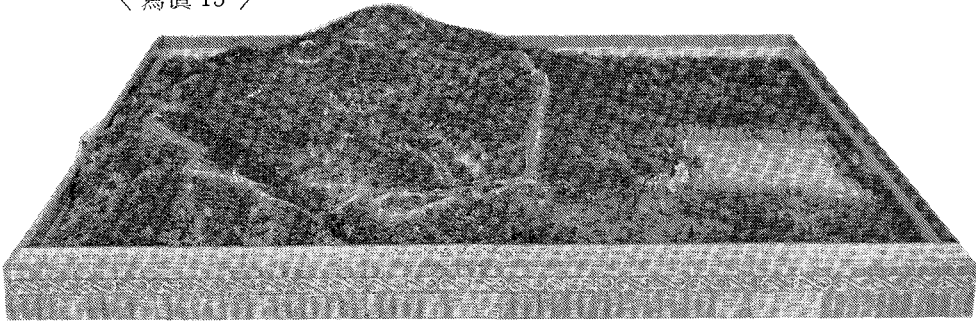
高句麗에서는 鼓吹樂이 盛行했는데 그 標本은 鼓(북)와 角笛이었다.

〈寫眞 14〉



安鶴宮（模型）

〈寫眞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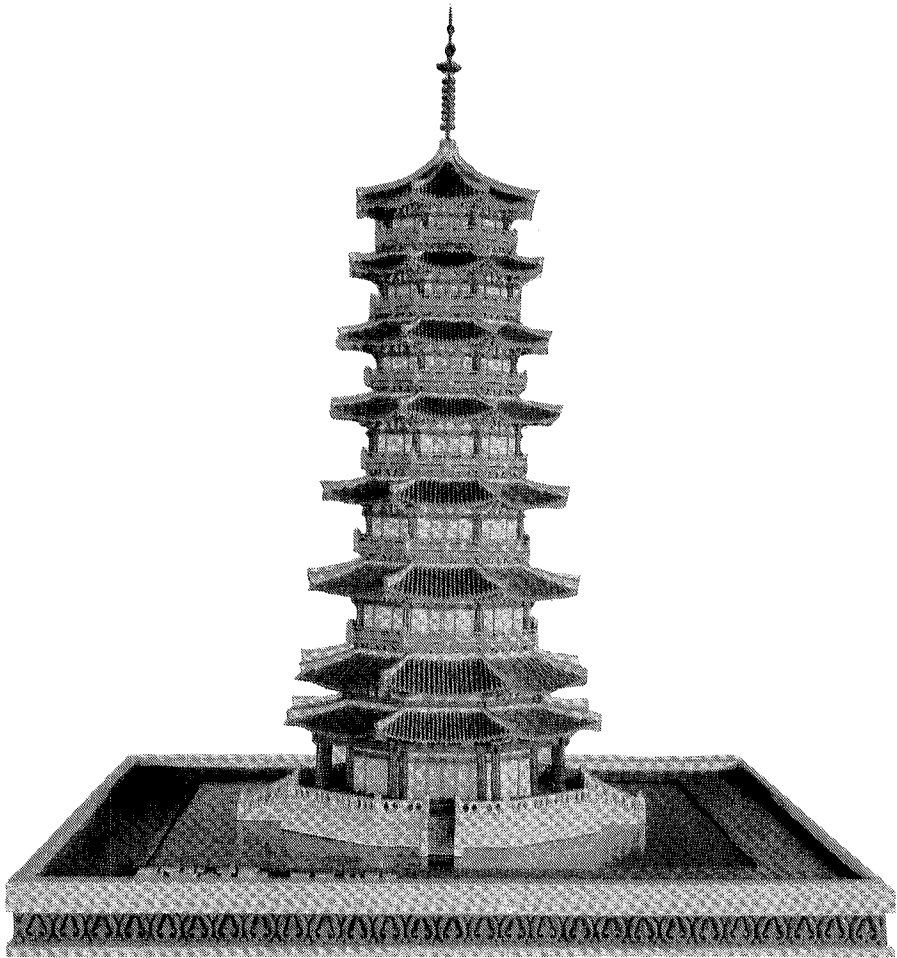
大城山城（模型）

〈寫眞 16〉



東明王陵斗 定陵寺址（模型）

〈寫眞 17〉



金剛寺塔（模型）

〈寫眞 18〉



廣開土王陵碑（模型）

〈寫眞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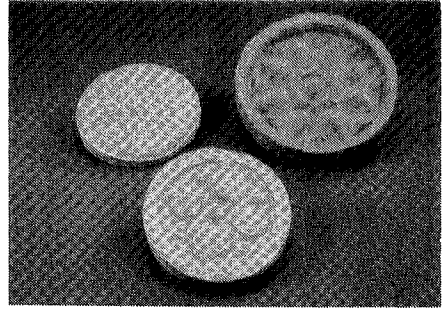
廣開土王陵碑（模型）

〈寫眞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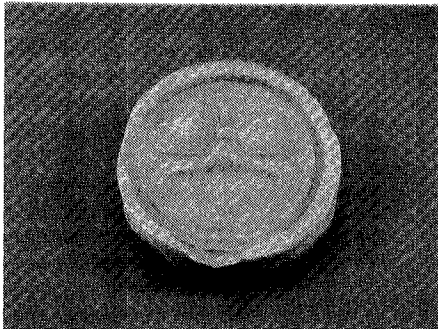
高句麗瓦

〈寫眞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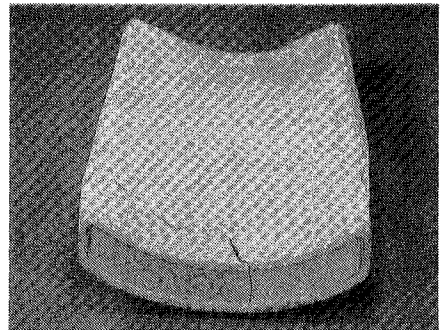
蓮花紋丸瓦 瓦當

〈寫眞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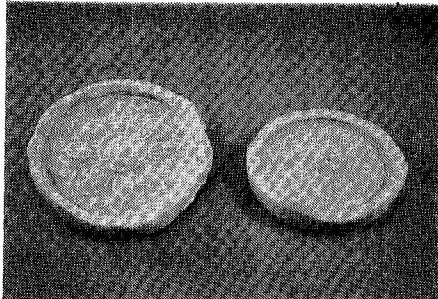
怪面紋丸瓦 瓦當

〈寫眞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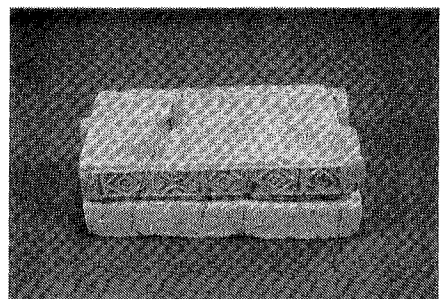
平瓦 瓦當

〈寫眞 23〉



蓮花紋丸瓦 瓦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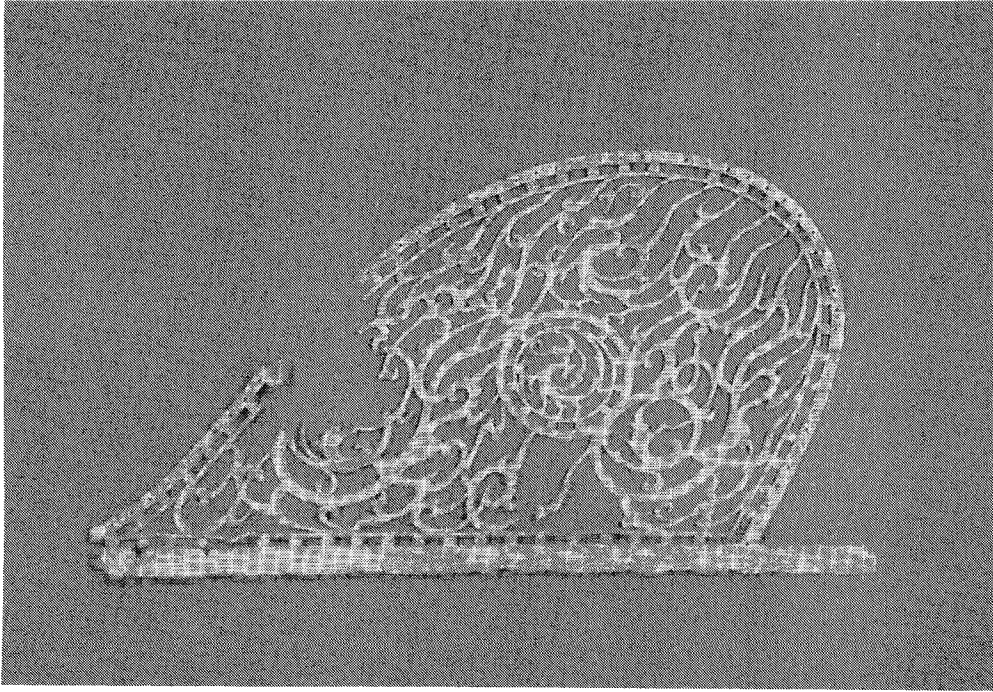
〈寫眞 24〉



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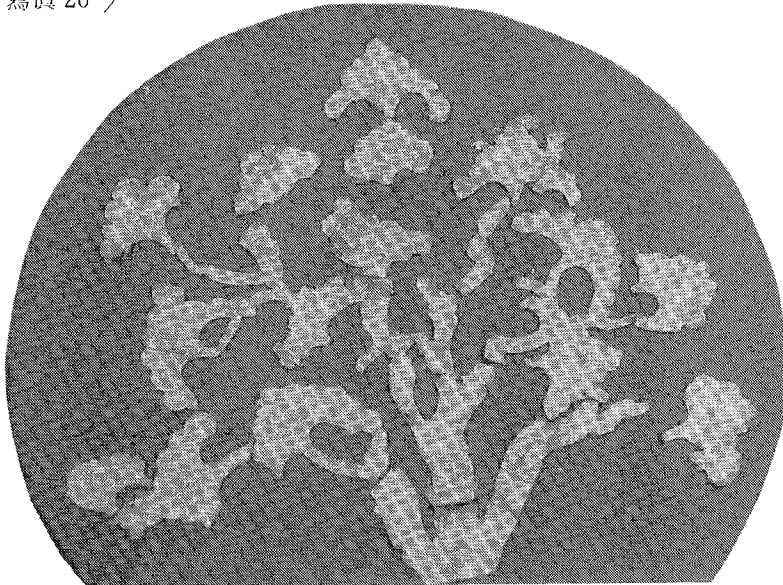


〈寫眞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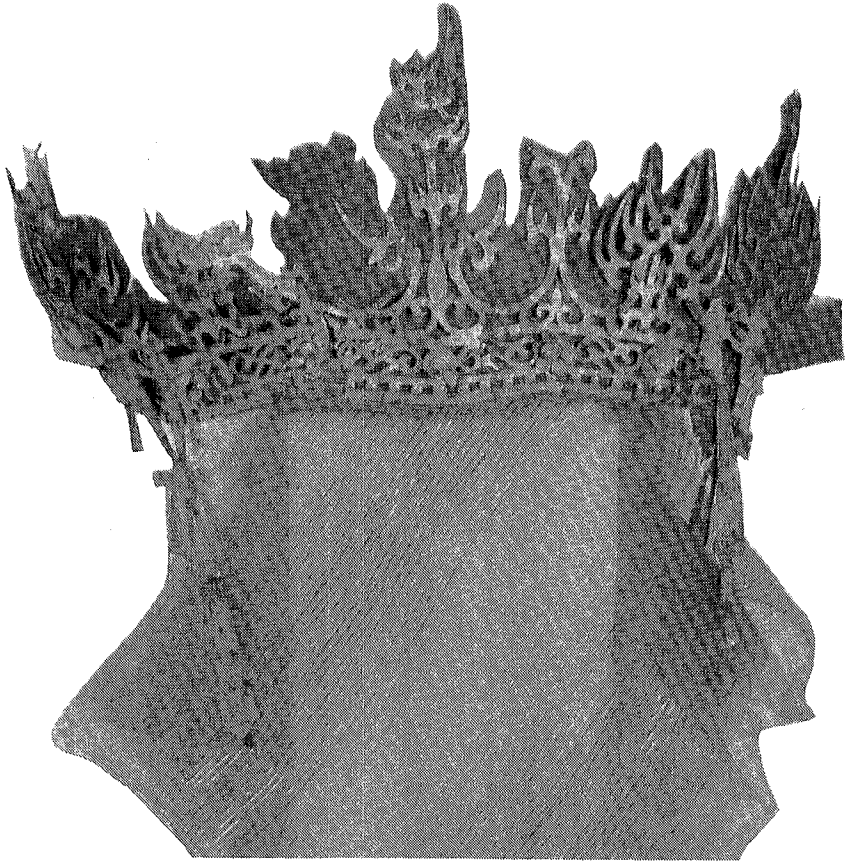
日像透彫 金銅裝飾

〈寫眞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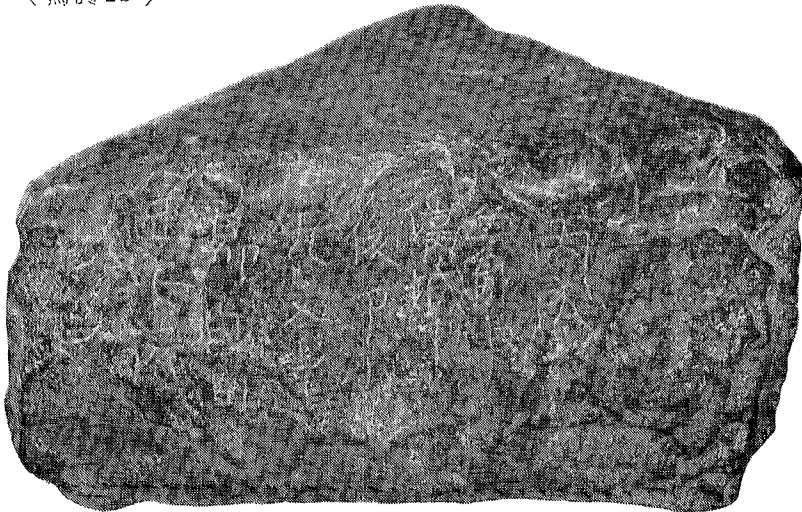
소나무形 金銅裝飾

〈寫眞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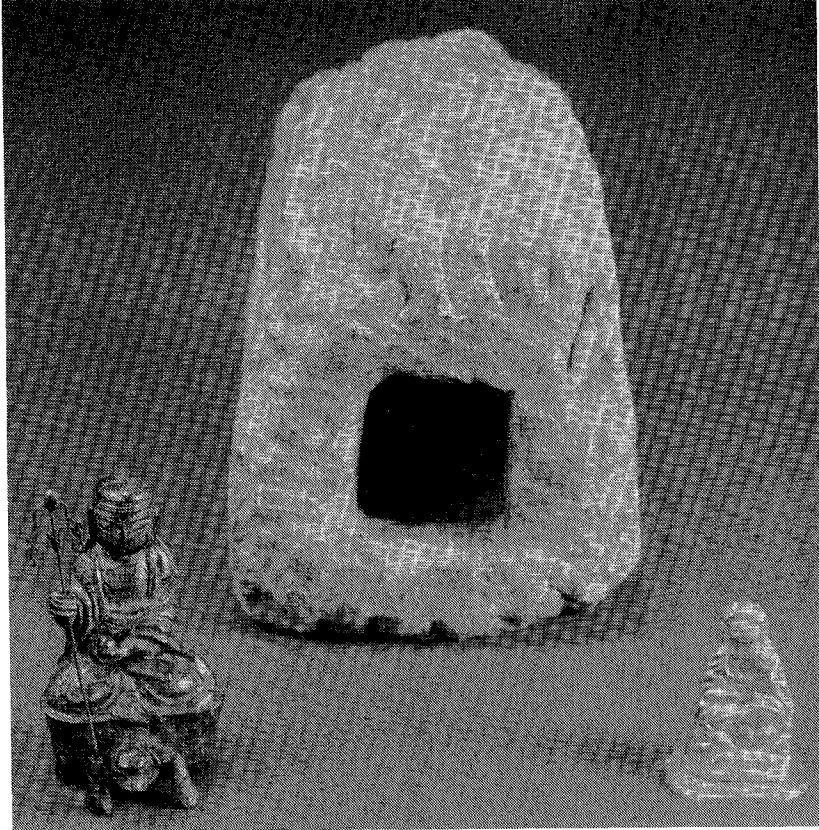
火炎紋透彫 金鋼冠

〈寫眞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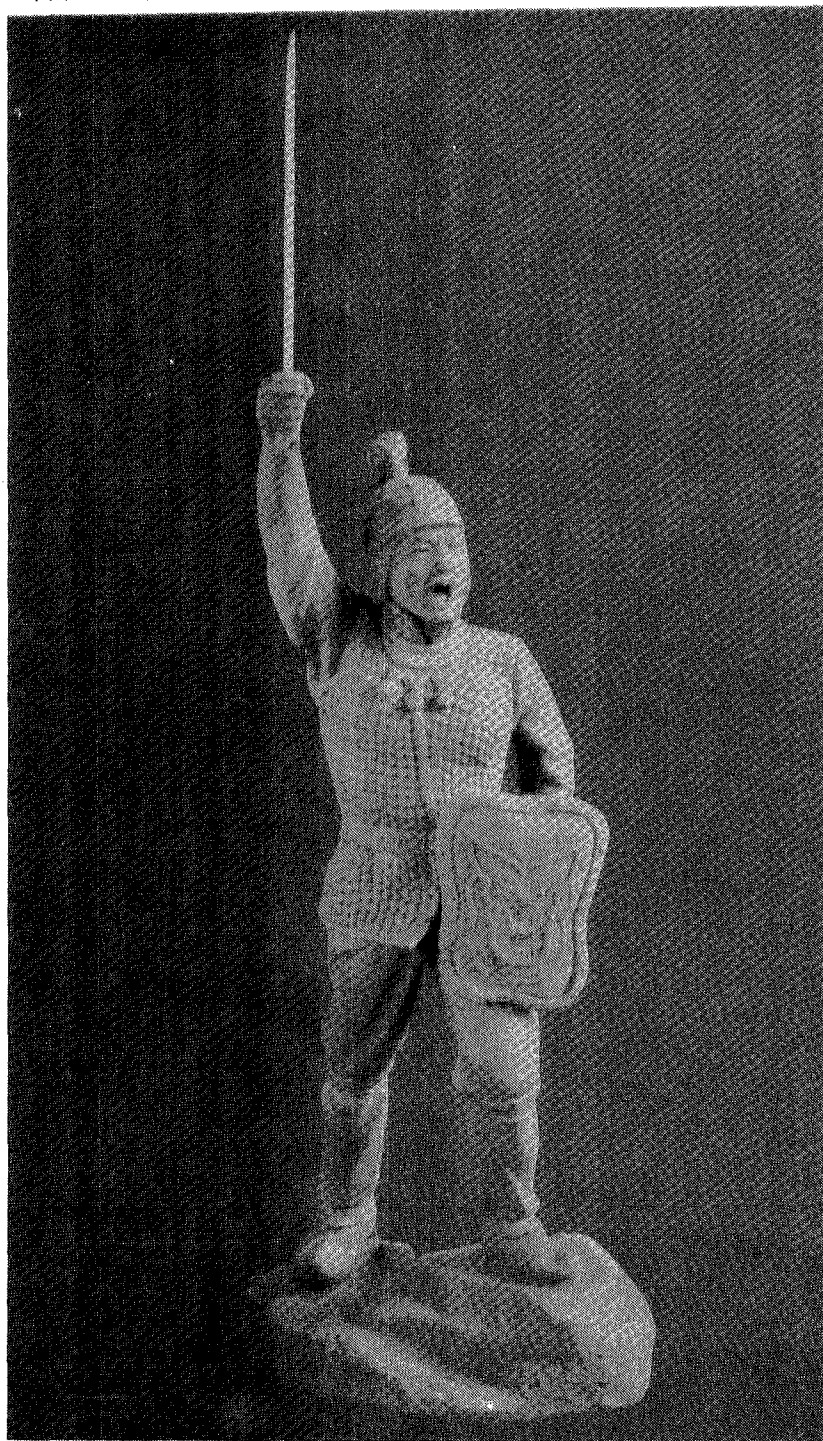
刻字城石

〈 寫真 2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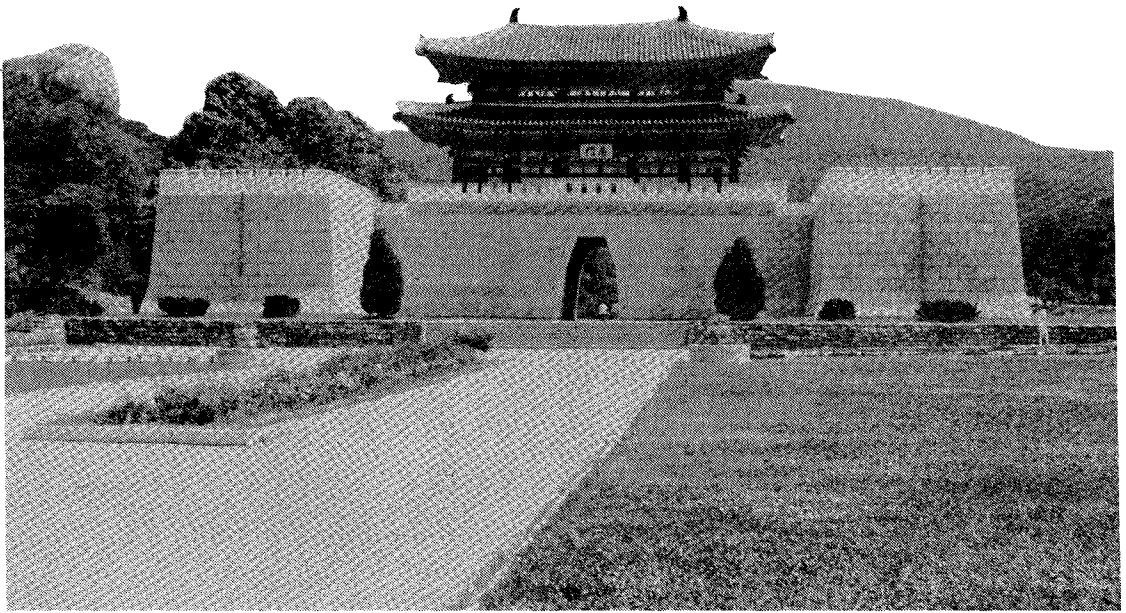


金 銅 佛

〈寫眞 30〉



兵士像（刀手）



大城山 南門

# 安鶴宮址와 定陵寺址의 發掘調査에 관하여

蔡 熙 國

( 金日成大學 歷史學部 歷史學講座長 )

解放後 北韓에서는 史跡의 發掘調査가 活潑하게 進行되어 왔다. 그리고 또 解放前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던 遺跡은 勿論, 不充分하게 밖에 調査되지 못했던 遺跡까지도 全面的으로 發掘함으로써 새로운 事實들을 많이 찾아내어서 考古學, 歷史 研究에 있어서 많은 새 分野들을 開拓하였다.

舊石器時代에서 高麗에 이르기까지의 大小의 遺跡들이 全國 各地에서 續續 發掘되고, 그에 따라 歷史研究가 積極적으로 進行된 結果 朝鮮史의 叙述은 完全히 새로운 樣相을 띠게 되었다.

朝鮮에 있어서의 多數의 發掘中에서도 安鶴宮址와 定陵寺址의 發掘은 建築址의 發掘로서 가장 大規模적인 것이었을뿐 아니라 그 成果의 두드러짐에 대해서도 注

目할만 하다.

이 두 遺跡은 다같이 高句麗의 平壤城 關係의 遺跡이지만, 高句麗의 古宮址와 寺院址의 全貌를 밝힌 것으로서 高句麗史 研究에 매우 貴重한 資料로 되었을뿐 아니라 歷史學上의 많은 問題들을 푸는 열쇠로 되어 있다.

安鶴宮址는 平壤市 大城區域에 있는 土城址이다.

이 安鶴宮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文獻記錄에 登場하여 内外의 注目을 끌어 왔었다.

또 그에 관한 여러가지 見解들이 發表되었지만 埋沒된 遺跡의 發掘을 隨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見解나 解釋은 假說의 域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安鶴宮址에 대한 本格的인 發掘은 1958年부터 始作되었는데 大城山城과 그 周邊의 高句麗墳을 包含하는 것이었다. 이 發掘은 1970年에 끝나고 그 結果가 『大城山の 高句麗遺跡』으로서 發表되었다.

高句麗王宮址의 發掘은 이것이 처음이지만 1邊이 約 622미터의 方形의 土城內에 總建坪 31,458 平方 미터에 이르는 52棟의 建築址와 그에 屬하는 2,590의 柱礎

址를 發見하였다.

安鶴宮址의 發掘은 高句麗王宮 建築의 特徵과 그 建築術의 發展水準을 처음으로 밝혀, 427年 遷都後의 平壤城首都의 成立과 그 實態를 푸는데 있어서 큰 意味를 가지는 것이었다.

특히 大城山城과 安鶴宮의 相互關係에 관한 討論은 安鶴宮址의 出土品에 힘입어 새로운 視點을 얻게 되어 正確한 結論을 導出하는 與件이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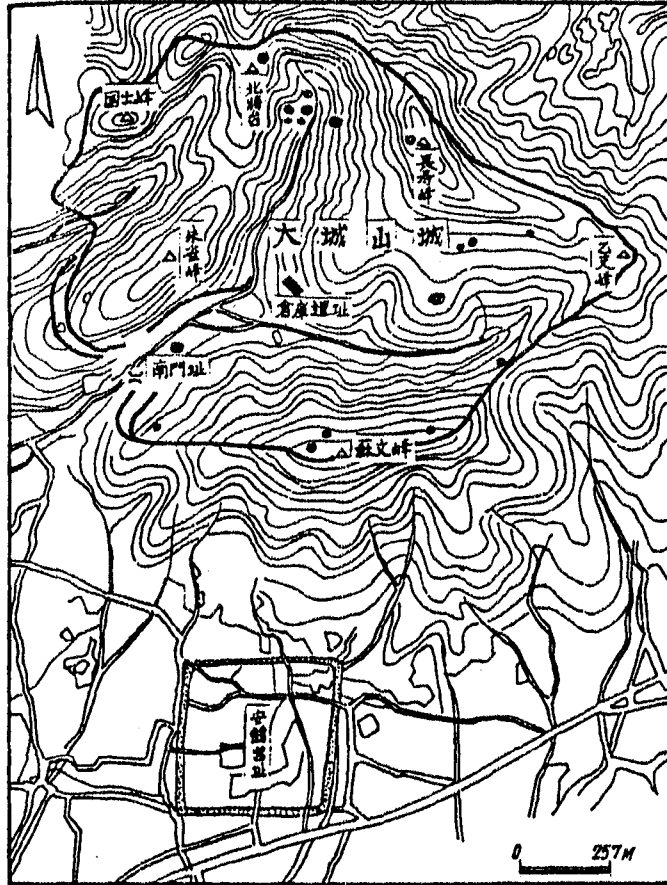
安鶴宮의 建築配置와 渤海上京龍泉府의 王宮配置와의 깊은 共通性은 高句麗와 渤海間의 繼承關係를 보여주는 確實한 資料가 되었다.

大城山城과 安鶴宮址의 發掘에 따라 高句麗의 平壤城에 관한 여러가지의 論議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은 朝鮮史學의 發展에 重要한 하나의 契機를 주는 것이라 하겠다.

定陵寺址의 發掘은 1974年에 始作되어 1976年에 出版된 『東明王陵과 그 附近의 高句麗 遺跡』이라는 報告書로서 結實을 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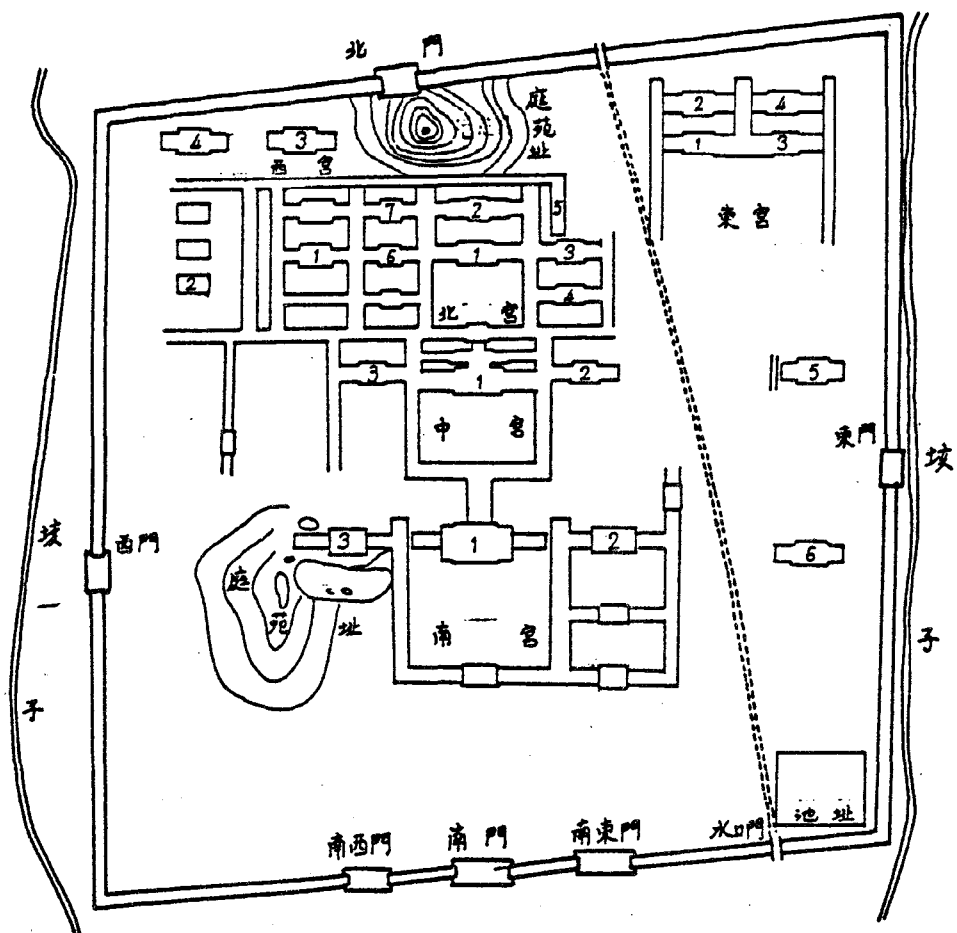


이때 까지 東明王陵에 대한 調査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實體는 밝혀지지 않았다. 定陵寺址에 관해서는 전혀 考慮되지 않았다.



大城山城과 安鶴宮址周邊 地圖

定陵寺址는 平壤市の 東南 22 km의 力浦區域 戊辰里에 있는 高句麗寺院址이다.



安鶴宮 實測圖

이때 까지 高句麗寺院址로서 調査된 것으로는 平壤市 大城區域 清岩洞 金剛寺址가 있다.

그 밖에도 上五里, 元五里등 몇몇 寺院址들이 斷片的으로 알려지고 있었다.

金剛寺址의 調査도 그 中心部의 一部の 發掘에 그쳐 있었기 때문에 高句麗寺院의 研究는 많은 制約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狀況下에서 定陵寺址가 全面的으로 發掘되었다는 것은 高句麗寺院의 研究에 劃期的인 契機를 주었다 하겠다.

定陵寺址는 東明王陵 前面 150 미터의 곳에 있다. 敷地는 東西 223 미터, 南北 132.8 미터, 面積 29,614.4 平方 미터의 大伽藍址이며, 이곳에서 18棟의 建築址와 10列의 回廊址가 發見되었다.

八角塔을 中心으로 配置된 定陵寺의 伽藍配置는 金剛寺의 그것과 많은 共通性을 보여주고 있어 高句麗의 寺院建築의 特徵을 밝히는데 重要な 資料가 되고 있다.

定陵寺의 出土物들 中에 「定陵」, 「陵寺」등 建物の 性格을 決定하는 刻字銘文이 있는 土器들이 있었다는 것은 定陵寺와 東明王陵의 참 모습을 解明하는데 決定的 意義를 가진다.

또 定陵寺出土의 19種의 瓦當紋은 이 遺跡의 年代를

決定하는 重要な 基準이 된다.

大城山城, 安鶴宮, 東明王陵, 定陵寺 등의 4 遺跡들은 모두가 平壤遷都를 前後하고 있어 首都의 重要施設로서 建設된 것으로 보인다.

安鶴宮과 定陵寺의 發掘은 4 世紀末에서 5 世紀初 까지의 平壤遷都 前後의 高句麗文化의 解明에 크게 寄與하는 것이 되었다.

安鶴宮과 定陵寺跡 發掘이 지니는 歴史的 意義는 매우 크다. 歴史的으로 戰亂을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朝鮮의 古跡들은 큰 被害를 입어 왔다. 이 때문에 朝鮮에서는 古跡의 發掘과 함께 그 復舊事業도 重要視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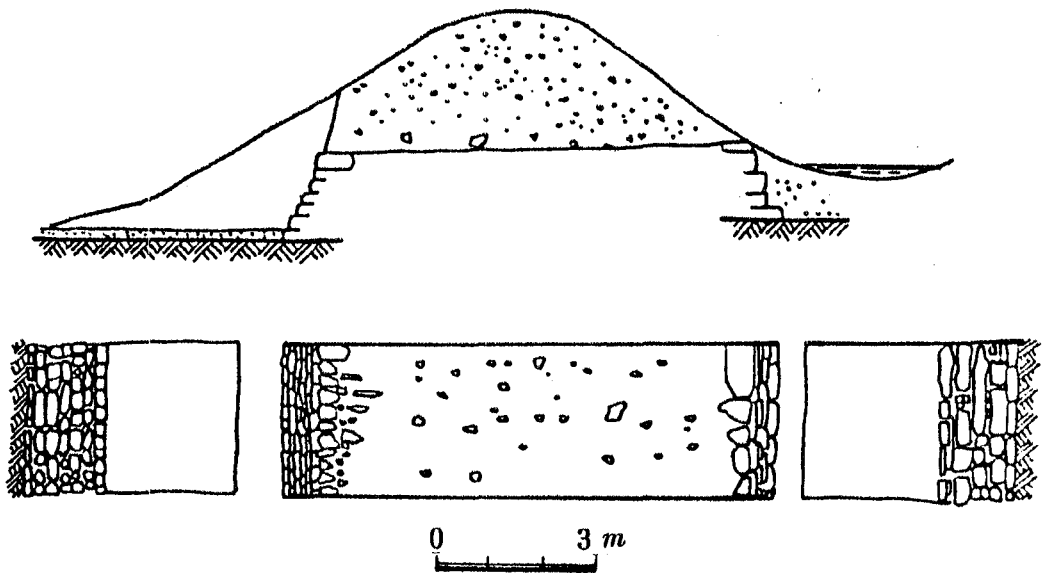
이렇게 하여 戰爭으로 因하여 破壞된 古寺院跡과 城門跡들이 續續 復元되어 지난날의 모습을 再現하게 되었다.

이러한 北韓의 遺跡保存政策下에서 安鶴宮과 定陵寺와 같은 大規模 建築群의 復舊事業이 推進되어 왔던 것이다.

現在 北韓에서는 各地에서 大規模의 發掘調査가 잇달아 進行되고 있어 이런것들은 安鶴宮과 定陵寺에 比肩할만한 規模와 意義를 지니고 있다.

文獻史料가 不足해 있는 古代史研究에 있어서 이들 遺跡이 얼마나 重要的가는 새삼 말할 必要도 없을 것이다.

北韓의 考古學界에서는 古朝鮮, 高句麗, 渤海등의 文獻上 湮滅된 歷史的 資料를 探查하는데 全力을 다하고 있는데 그 成果는 期待에 副應할 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安鶴宮城壁 斷面圖

# 高句麗文化와 古代의 日本

上 田 正 昭

(日本 京都大學 教授)

高句麗의 歷史와 文化는  
古代의 東아세아에 있어서  
注目할만한 位置와 役割을  
保有한다. 그리고 그것은  
古代日本의 歷史와 文化의  
展開와도 깊은 關聯을 가  
졌었다.



腰鼓 (輯安 5 塊墳 第 4 號墓)

高句麗와 倭國(또는 日本國)과의 關係는 『日本書紀』・『續日本紀』・『新撰姓氏錄』 등에도 斷片的으로 記載되어 있지만, 4世紀末에서 5世紀初에 걸친 朝鮮半島의 情勢와 「倭」의 動向을 말해 주는 資料로서 가장 有名한 것은 高句麗 廣開土王(好太王)碑文이다.

高句麗의 長壽王 2年(414)에 세워진 그 碑는 中華

人民共和國 吉林省 輯安縣 太王鄉에 現在도 保存 되어 있다.

높이 6.34 미터의 角礫凝灰岩(梯形 4角柱)의 碑의 4 面に 碑文이 새겨져 있는데, 碑文은 第 1 面に 11 行, 第 2 面に 10 行, 第 3 面に 14 行, 第 4 面に 9 行으로 되어 있다.

各行은 大體 41 字로 構成되어 있으며 碑文의 內容은 다음의 3段으로 區分할 수 있다.

即, 第 1 段에는 高句麗의 建國神話와 好太王에 이르는 동안의 由來와 그의 經歷, 功績 및 建碑의 意義 등이 簡潔하게 記述되어 있고, 第 2 段에는 永樂 5 年( 395 )부터 永樂 20 年 까지의 好太王을 둘러싼 動靜과 그 武勳들이 編年的으로 記錄되어 있다. 말하자면 年代記의 體制로써 記述되어 있다.

많은 先學들이 注目해 온 「倭以辛卯年來……………」의 問題의 句節은 第 2 段 永樂 5 年の 條의 末尾에 插入되어 있으며,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을 받아, 또 「以

六年丙申王躬率水軍討國殘國軍」以下の 前置文으로서 定位되어 있다.

이 「倭」를 지난날과 같이 大和朝廷乃至는 大和政權으로 斷定하는 說에는 얼른 贅同하기가 어렵지만 古代의 日朝關係史를 參考함에 있어서의 貴重한 碑文임에는 變함이 없는 것이다.

第3段에는 守墓人·烟戶에 관한 記述과 守墓人을 둘러싼 禁制가 記入됨으로써 碑文이 맺어져 있다.

廣開土王碑文이라 하면 자칫 「倭以辛卯年來 ……」의 句節만이 問題視되는 傾向이 있으나 第1段과 第3段의 內容에 관해서도 더 檢討해야 할 問題가 남아 있다. 이를테면 碑文의 첫머리를 裝飾하는 鄒牟王의 建國神話에는 神武天皇과 「니기하야히」를 둘러싼 日本神話의 傳承과 類似한 要素가 있어 日朝神話의 比較에 있어서도 輕視할 수 없다.

鄒牟王은 朱蒙 或은 東明王이라고도 呼稱되게 되는 高句麗神話의 始祖이다.



그 神話는 곧 增幅되어 나가는데, 鄒牟王을 둘러싼 神話傳承은 『古事記』, 『日本書紀』, 『先代舊事本紀』 등에서 傳해지고 있는 「니기하야히」의 降臨傳承 등과도 共通된 構成을 보여주고 있다. 鄒牟王의 神話는 輯安縣에 있는 高句麗의 牟頭婁墓 墨書墓誌에도 있는 高句麗의 建國神話가 늦어도 5世紀初까지에 成立되어 있었다는 것을 實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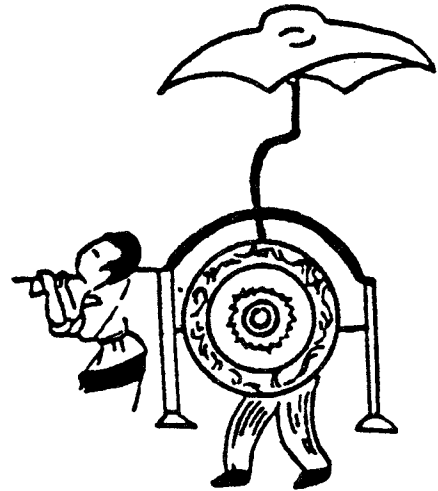
그리고 鄒牟王의 傳承은 『日本書紀』의 天智天皇 7年 10月の 條를 비롯하여 『續日本紀』・『新撰姓氏錄』등에도 나와 있다.

神話뿐만 아니다. 高句麗와 古代日本과의 關係는 考古學上的 遺物・遺跡에도 질게 連動되어 示唆性이 豊富하다. 高句麗(高麗)와의 關聯은 『日本書紀』의 「神功皇后 攝政前紀」를 비롯하여 日本의 古文獻에도 자주 登場한다.

『日本書紀』의 應神天皇 7年の 條에 記錄된 高麗人(高句麗人)渡來의 史實은 어찌됐건, 高句麗라는 巨大한

存在를 倭國의 支配階層들이 强하게 意識하고 있었다는 것은 『宋書』의 夷蠻傳에서 말하는 昇明 2年(478)의 倭王武(雄略大王)의 上表文에도 뚜렷하다.

高句麗와의 公的交涉을 나타내는 確實한 記載는 『日本書紀』의 欽明天皇 31年の條에서 었다. 거기에는 「高麗의 使人」의 來着이 이야기되고 있으며 京都府 南部의 高槭館·相樂館에서 饗應을 베푼 것이 나와 있다.



擔鼓(水山里壁畫古墳)

더우기 來着의 說話에는 「越の道君(고시노미찌노·기미)」가 「高麗의 使人」을 「隱匿」했다는 興味있는 逸話도 包含되어 있다.

難波(나니와-지금의 大阪地方)에도 「高麗館」이 設置되었는데 그 使節들의 大多數는 日本海(東海)루트로 渡來하였다.

敏達天皇 2年(573)·同 3年, 그리고 天智天皇 7

年( 668 )의 渡來는 모두 北陸( 日本 北部地方 )으로부터의 上陸이었다.

大和의 飛鳥에서 近江의 大津京에의 遷都도 私見으로 는 高句麗를 強하게 意識했기 때문의 都邑造成의 要素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古墳時代의 遺物들 中에는 高句麗文化의 影響을 如實히 보여주는 것이 있으며, 또 古代日本의 積石塚의 源流는 高句麗의 積石塚으로 溯及된다.

특히 飛鳥文化와 高句麗文化와의 關聯에는 看過할 수 없는 일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蘇我氏의 寺院으로서 建立되어 後日 官寺가 되었던 大和飛鳥의 飛鳥寺( 法興寺 )의 伽藍配置는 發掘調査의 結果 一塔三金堂의 보기드문 形式이라는 것이 判明되었다.

이와 같은 伽藍配置는 高句麗의 淸岩里廢寺( 金剛寺 ) 跡과 高句麗의 定陵寺跡과 酷似하다.

이 飛鳥寺에 먼저 住持한 僧은 高句麗僧인 慧慈와 百濟僧 慧聰이었다. 이들은 모두 厩戶皇子( 聖德太子 )의 스승이 되었는데, 推古天皇 3年( 595 )에 渡來하여 推

古天皇 23 年에 歸國한 慧慈의 思想이 聖德太子에게 미친 緣由에는 注目할만한 것이 있다.

飛鳥寺의 佛像의 建立에 高句麗의 大興王(嬰陽王)이 黃金 300 兩(『日本書紀』, 『元興寺緣起』에서는 三百廿兩)을 寄進하였다는 것도 或是 慧慈등이 本國에 돌아가 알려준 情報에 따른 것인지도 모른다.

『日本書紀』에는 推古天皇 18 年에 高句麗僧인 曇徴과 法定등이 渡來하여 曇徴은 「彩色과 紙墨만들기를 잘하고 또 碾磑(맷돌)를 만들다」고 記述되어 있다.

紙墨의 製法과 碾磑의 知識등이 傳來되었을 뿐 아니라 高句麗의 樂舞도 傳해졌다.



阮咸・長笛(安岳第3號墳)



彈琴圖(舞踊塚)

天武天皇 12年(683)에는 飛鳥淨御原宮에서 高麗, 百濟, 新羅의 이른바 「三國樂」이 演奏되고 있다.

律令制下の 治部省에는 雅樂寮가 있었고 雅樂寮에는 唐樂師·樂生, 百濟樂師·樂生, 新羅樂師·樂生등과 함께 高麗樂師 4名·高麗樂生 20名이 所屬해 있었다.

天平3年(731)에는 雅樂寮의 雅樂生의 人員이 改定되었는데, 唐樂의 樂生이 唐人에만 局限되지 않고 教習에 支障이 없는 音으로써 充當된 것에 비해 三國樂의 樂生이 各各 朝鮮渡來의 사람들으로써 構成하게 되어 있는 點도 看過할 수 없다.

朝鮮渡來의 樂舞의 傳統은 如前히 重視되고 있었다.

그리고 天平勝寶4年(752)의 東大寺 大佛建立의 盛大한 開眼供養會에서는 高麗樂·高麗女樂등도 演奏되었다.

高麗樂의 演奏例는 『續日本紀』등에도 자주 나오며 渤海樂과 나란히 日本의 雅樂에 큰 比重을 占하고 있었다.

聖德太子의 思想과 行動의 背後에 高句麗와의 連繫가 있었다는 것도 無視할 수 없거니와 太子가 사랑했던

妃 橘郎女(다찌바나노·이라추메)가 聖德太子의 冥福을  
빌어 采女(우네메-侍女)에게 짜게한 中宮寺의 「天壽  
國 繡張」의 「畫者」의 한사람은 「高麗加西溢」이었다.

『日本書紀』의 推古天皇 12年の 條에는 「 처음으로  
黃書畫師·山背畫師를 定하다」고 되어 있다.

이 「黃書畫師」라는 것은 『新撰姓氏錄』에도 記載된바  
와 같이 高句麗系의 渡來人 畫師였다.

高句麗에서 건너온 사람들 中에는 「畫師」로서 活躍  
한 사람도 적지 않다. 高麗畫師 子麻呂는 高句麗의 使  
人을 私邸로 불렀으며, 또 畫工 狛豎部 子麻呂는 「佛  
菩薩의 像을 만들었다」(『日本書紀』).

萬一 이 兩者를 同一人物로 본다면 高麗畫師의 子麻  
呂는 造像에도 從事한 것이 된다.

黃書畫師들의 集團과 連携가 깊은 人物에 黃書造本實  
이 있다. 그는 天智天皇 10年(671)에 水泉(水準器)  
을 바치고 있는데, 藥師寺의 「佛足石記」에 따르면 唐  
으로 건너가 普光寺에서 佛足跡圖를 寫하여 歸國한 人  
物이었다고 傳해지고 있다.

黃書造는 天武天皇 12年(683)에는 黃書連으로 되고  
黃書連本實은 持統天皇 8年(694)에는 鑄鐵司, 大寶 2  
年(702)에는 持統太上天皇의 「作殯宮司」, 慶雲 4年  
(707)의 6月에는 天武天皇의 殯宮에서 奉仕, 同年 12  
月에도 「御裝司」의 한사람으로서 造陵에도 關係하였다.

高松塚壁畫古墳이 檢出되었을 때 그 壁畫의 畫師그룹  
의 리더로서 黃書連本實의 이름이 脚光을 받았던 것도  
그만한 理由가 있었던 것이다. 黃書의 姓氏가 傳統的으로 畫  
師로서 活躍한 것은 「正倉院文書」에 依해서도 엿볼 수 있다.

高句麗의 壁畫古墳은 中國 吉林省 輯安縣을 中心으로  
하는 地域과 平壤을 中心으로 한 大同江流域 및 黃海  
道 安岳周邊등에 分布되어 그 數는 50基를 넘는다.

輯安縣內에서는 20基(牟頭婁塚을 除外하면 19基)라  
고 한다.

近來의 調查에서 밝혀진 大安市의 德興里壁畫古墳과 輯  
安縣內의 壁畫古墳 몇몇을 實際로 볼 수 있는 機會  
가 있었는데, 高松塚壁畫古墳의 婦人像의 服裝은 德興里  
壁畫古墳등과 類似했다.



舞踊圖(舞踊塚)



侍女服裝(龜神塚)

壁畫古墳은 百濟(二), 新羅(二), 伽倻(一) 등으로 朝鮮半島 南部에도 分布되어 있지만 壓倒적으로 濃密한 것은 高句麗였다.

高句麗의 壁畫古墳과 古代日本의 그것과의 比較研究도 또 더욱 더 前進될 것이 期待된다.

自村江의 싸움에서의 高句麗와 倭國과의 關係는 이때 까지 그다지 注意되지 않았으나 高麗救援軍의 派遣 또는 「兵事」에 관한 高句麗에의 進言등 兩者의 連關과 動向에는 다시 한번 注目할만한 內容이 간직되어 있다.

『家傳(上)』(『大織冠傳』)에는 高句麗王이 中臣(藤原)鎌足에게 「內公書」를 贈呈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도 興味있다.



古代日本の 史跡들 中에는 高句麗와의 史脈을 말해주는 것들이 적지 않다.

『和名類聚抄』에, 山城國에 大狛郷·下狛郷, 武藏國에 高麗郡 高麗郷등의 郡·郷의 이름들이 보이는 것도 결코 偶然이 아니다.

埼玉縣 入間郡의 高麗神社 或은 京都府 山城町 上狛의 高麗廢寺跡 같은 것들도 高句麗系 渡來文化와의 重層을 明示하는 證據이다.

京都市 西京區 檜原廢寺의 八角塔 基壇같은 것도 高句麗의 寺塔과의 脈絡을 推察케 한다.

지금은 高句麗文化와 古代의 日本이 連動하는 樣相들을 훑어본데 지나지 않지만 이번의 高句麗文化展은 그러한 高句麗文化와 直接 接觸하는 두번 다시 없을 機會인 것이다.

스스로의 史眼을 가지고 高句麗의 文物을 바로 보고 지난날의 倭國과 高句麗와의 接點을 뒤돌아 봄으로써 現在와 未來의 日朝友好의 참모습을 自身の 問題로서 비추어 보고 싶다.

# 高句麗古墳 壁畫와 日本古代 美術

上原 和  
(日本 成城大學 教授)

우리나라(日本)의 古代美術의 一大寶庫라 하면 누구나 다 대뜸 奈良의 法隆寺의 이름을 들 것이 틀림 없겠지만 그 法隆寺의 寶物들 中에서도 가장 日本人의 자랑으로 삼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親熟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金堂의 壁畫였다.

昭和 24 年(1949 年)의 겨울에 火災로 燒失되어 버린 것은 무엇보다도 痛限스러운 일이었지만, 實은 그 法隆寺의 金堂壁畫의 作者에 관해서는 오랜동안 高句麗의 僧曇徵으로 口傳되어 왔다.

寺傳뿐이 아니다. 明治 21 年(1888 年)의 全國寶物調査 때의 政府의 記錄에도 亦是 曇徵作으로 記入되어 있었다.

曇徵의 來朝에 관해서는 『日本書記』의 推古 18 年(610)의 條에 「春三月에 高麗의 王, 僧曇徵・法定을

바치다. 曇徵은 五經을 알고 있었다. 또 彩色 및 紙墨을 잘 만들고 아울러 碾磑를 만들다」고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現在의 法隆寺 金堂은 推古時代에 聖德太子에 依하여 創建된 그대로의 飛鳥建築이 아니라 天智 9年 ( 670 )의 罹災로 그 뒤 再建된 白鳳建築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제 法隆寺의 金堂壁畫를 曇徵의 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일은 이 日本의 古代美術의 至寶라고도 할 수 있는 金堂壁畫의 作者를 高句麗의 僧 曇徵이라고 오랫동안 傳해온 日本人의 心情에 대해서 이다.

日本人의 마음속에 긴 歲月동안 간직해 온 曇徵에 대한, 나아가서는 曇徵의 母國 高句麗에 대한 敬愛의 情과 高句麗文化에 품는 敬愛의 氣分을 말이다.

여기서 高句麗사람에 대하여 품는 親愛의 情이라고 하면, 우리들 日本人에게는 쉽게 잊을 수가 없는 것은 推古3年 ( 595 )의 5월에 來朝하여 젊은 날의 聖德太子의 스승이 된 高句麗僧 慧慈이다.

이 해에 百濟로부터 僧 慧聰이 迎入되어 함께 佛敎  
를 國是로 하여 새로이 發足한 推古朝의 “三寶의 棟  
樑”으로서 攝政인 皇太子를 補佐하여 佛敎의 隆興에  
힘쓰게 되는데, 慧慈는 다시 太子의 內的인 人間形成에  
있어서도 아주 큰 影響을 주게 된다.

또 推古朝에 있어서의 高句麗와의 友好關係라 하면,  
『日本書記』의 推古13年(605)의 條에 따르면, 天皇의  
勅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丈六(譯註:佛像  
立像이 16尺)의 大佛이 造像기로 되었을 때 이것을  
傳해 들은 高句麗의 大興王(嬰陽王 16년에 該當된다)  
으로부터 黃金 300兩이 獻上되고 있다.

翫14年(『元興寺緣起』에 나오는 丈六光銘에서는 17  
年)에 完成한 이 釋迦像은 飛鳥寺의 金堂에 새로이  
本尊으로서 맞아 들여지게 되는데, 이때 高句麗王과의  
折衝을 맡은 것은 推古4年 以來로 慧聰과 함께 飛鳥  
寺에 住持하고 있던 慧慈로 보아도 支障이 없을 것이다.

이때에 佛師는 司馬鞍作首 止利인데 止利는 丈六佛을  
造像함에 있어서 그 見樣을 天皇에게 獻上하고 있다.

天皇의 御意에 들었다는 그 見樣은 或是 高句麗에서 傳來된 小金銅佛의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現在 飛鳥寺에 남아 있는 釋迦丈六像은 火災에 火傷을 입어 많이 損傷되어 있다고는 해도 아직 그 顔容에는 端正尊嚴함이 남아 있다.

그것은 延嘉 7年歲在 己未( 539年 또는 599年)銘을 지닌 高句麗製의 小金銅如來 立像과 아주 近似하다.

推古 31年( 623 )에 故聖德太子를 爲하여 造像된 釋迦三尊像도 역시 止利佛師의 作이지만, 柔和한 얼굴의 百濟모양의 佛像과는 두드러지게 像容을 달리하는 一連의 이른바 止利樣式의 佛像은 本來 高句麗에서 傳來된 小金銅佛을 본딴 것이 아닐까.

또 飛鳥寺에 관해서는 昭和 31, 32年( 1956, 57年)의 發掘에 依하여 塔을 中心으로 北・東・西의 3方に 金堂을 두는 伽藍配置가 判明되어 있지만 이미 이러한 一塔三金堂式의 伽藍配置가 平壤에 가까운 高句麗時代의 金剛寺址( 創立 497年)에서 發見되었기 때문에 飛鳥寺의 伽藍配置는 高句麗式인 것으로 보고 있다.

蘇我氏の 氏寺에서 勅願의 寺刹로 그 寺刹의 性格이 크게 달라져 가는 推古 13 年頃에 當初의 一塔一金堂의 百濟式에서 高句麗式으로 變貌하고, 또 이때 까지의 舊金堂에 새로이 高句麗樣式의 丈六의 本尊이 맞아들여 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때마침 그 무렵, 卽 推古 15 年( 607 )에는 聖德太子의 宮殿이 있는 斑鳩塲에서 法隆寺의 金堂이 完成되는데, 놀랍게도 여기서도 高句麗의 古墳壁畫 위에 보이는 忍冬唐草紋이 그 처마끝을 裝飾하는 처마 平瓦 위에도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卽 今日 法隆寺境內의 若草伽藍址에서 出土되는 創建時의 그것이 바로 이 처마이지만, 이때까지 처마 平瓦의 瓦當紋樣으로서는 전혀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 華麗한 忍冬唐草紋의 先例가 實은 江西大墓의 玄室 第 2 層의 天井의 側面에 鮮明하게 發見되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되는 것으로 이 忍冬唐草의 瓦當紋樣은 竹주걱으로 彫刻되어 있는 點이다. 鑄型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手刻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高句麗에서 들여온 이른바 디자인集을 보아 가면서 이것을 처마 平瓦의 瓦當 위에 배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각 밖으로 그것은 止利佛師들이 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高句麗에서 渡來한 畫師들이라 하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推古 30年(622)에 聖德太子가 薨去했을때 妃의 한사람인 橘大郎女에 依하여 發願된 「天壽國繡張」의 아래에 그림을 그린 畫師로서 그 이름이 銘文에 나타나는 高麗의 加世溢인데, 그밖에도 「日本書紀」에는 白雉 4年(653)의 6月の 條에 大化改新 때의 國博士였던 旻法師 入寂에 대하여 孝德天皇의 命에 따라 많은 佛菩薩像을 그린 畫工狛豎部子麻呂의 이름이 보이는 것이며, 또 齊明 5年(659)의 條에도 高句麗에서 來朝한 使人들을 同族의 情誼로 自己집에서 歡待한 高麗畫師 子麻呂의 이름이 發見된다.

그리고 高句麗에서 온 使者라고 하면 齊明 6年(660)의 條에는 高句麗로 부터의 使人 乙相賀須文등 100餘人이 來朝한 것을 傳하고 있다.

이 3年後의 天智2年(663)에는 大和朝廷의 水軍은 白村江에서 唐의 水軍과 싸워 敗하고, 다시 그 7年後인 天智8年(669)에는 高句麗도 唐에 依하여 滅亡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敗戰과 高句麗의 滅亡과의 말하자면 그 前夜에 이르기까지 繼續되고 있던 彼我的 交流의 濃密했음을 알아 두는 것은, 다음에 高松塚古墳 壁畫와 高句麗古墳 壁畫와의 關係를 생각함에 있어서도 重要하다.

그러나 唐에 依하여 滅亡되기는 했지만 高句麗 遺民의 反亂과 新羅의 應援으로 마침내 唐은 遼東으로 後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여기에 新羅에 依한 朝鮮半島의 統一이 이루어 지지만, 新百濟派인 近江朝가 무너지고 다시 飛鳥에 새 政權이 樹立된 天武2年(673)以後에 있어서도 한동안은 그래도 高句麗로 부터의 使者는 繼續되고 있으며, 또 무엇보다도 日唐의 交流가 杜絶되고 있던 天武·持統 朝下를 通하여 統一新羅와 密接한 友好關係를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7世紀 後半의 日朝關係의 위에 서서 高松塚



壁畫古墳의 問題들도 그 視座에 올려 놓을 必要가 있  
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면 高松塚壁畫古墳에 관해서 인데 1972 年의 3 月  
奈良縣 明日香村에서 彩色壁畫가 있는 高松塚古墳이 發  
見되었을 때 맨먼저 始作된 것은 被葬者를 찾는 일이  
었으며, 그 被葬者가 天武天皇의 皇子등으로 想定되었기  
때문에 古墳의 築造年代는 그들 皇子의 沒年이 集中되  
는 7世紀 末에서 8世紀 初로 假定되게 되었었다.

그때 마침 안성마침의 比較의 對象이 된것이 中國의  
陝西省 乾縣에 있는 神龍2年(706)銘의 永泰公主唐墓  
의 壁畫였다.

그리하여 高句麗古墳 壁畫와의 關係는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果然 그러할까. 먼저 무엇보다도 墓誌銘이 發  
見되지 않는다는 데서 아주 朝鮮式의 葬法과 相通되는  
것이 있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中國에서는 아무리 貧民의 墓라 할지라도 被葬者의 生  
死의 記錄이 墓標에 쓰여져 있다.

그러나 高句麗를 비롯하여 古代의 朝鮮에서는 被葬者  
가 여간 中國通이 아니면 墓誌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은 本是 墓葬의 目的이라는 것이 被葬者의 追憶  
을 爲해서 뿐만 아니라 死者의 靈魂을 鎮魂시키고 지  
키는데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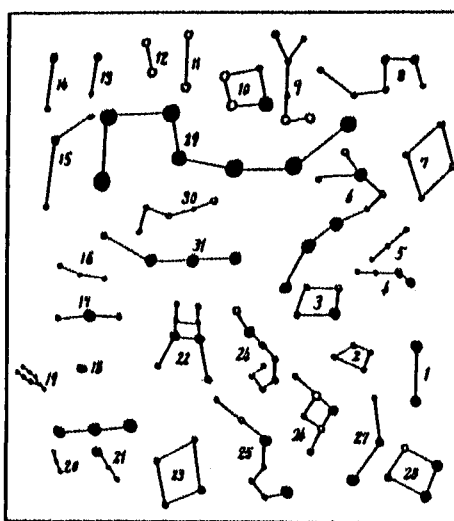
高松塚古墳의 壁畫는 男女의 人物群像圖가 發見됨으로  
써 마치 人物圖가 壁畫의 主役인양 생각되고 있지만 ;  
이것은 잘못이며 壁畫의 主役은 石槨의 4 壁에 그려져  
있는 靑龍·白虎·朱雀(欠)·玄武의 4 神圖와 日月星辰圖  
들이다.

人物群像이 그려져 있는 것은 東壁 中央에 靑龍의  
左右와 西壁 中央의 白虎의 左右이며 단지 助役밖에 되  
지 않는 것이다.

被葬者의 靈魂의 守護神으로서의 宇宙의 主宰者들인  
日月星辰과 4 神을 그리는 慣習이야 말로 바로 高句麗  
古墳壁畫에 두드러진 傳統이며, 穹窿形의 天井構造는 天  
體가 運行하는 宇宙空間의 表現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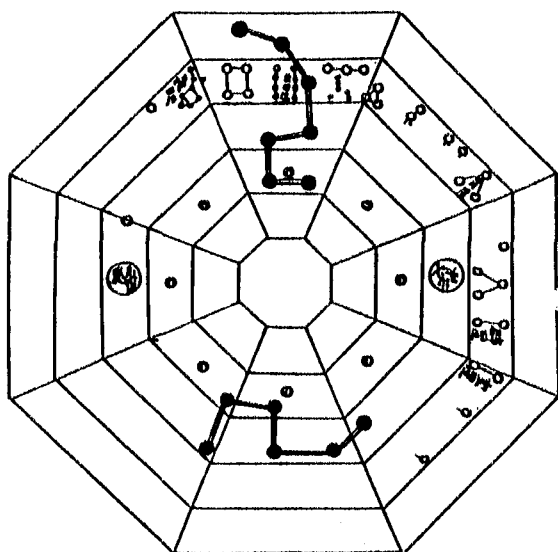
高松塚이 發見되었을 때 天井에 가득히 흩어져 있는

金箔의 星宿圖의 緻密함에  
 感嘆의 소리를 질렀거니와 高  
 句麗壁畫古墳에 있어서는 6  
 世紀로 보이는 眞坡里 4 號墳  
 과 德花里 2 號墳의 天井에는  
 28 星宿가 그려진 星辰圖가  
 보이고 있으며, 더우기 前者  
 에는 金箔이 貼飾되어 있는 點,  
 高松塚의 星辰圖의 先  
 例를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이다.



天井星辰圖 (眞坡里第 4 號墳·復元)

이와 關聯되는 것으로, 高松塚古墳壁畫가 發見된지 10



星辰圖 (德花里第 2 號墳)

年이 지난 1983 年 11 月,  
 같은 明日香村의 丘陵地  
 帶에서 파이버·스쿠오프  
 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石槨內的 北壁에 玄武  
 가 그려져 있는 키트라  
 古墳이 發見되고 있다.

이들 飛鳥의 終末期의 古墳은 모두가 팔손이 나무의  
 앞처럼 뒤엎힌 地形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地勢는 朝  
 鮮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風水思想에 따라 南이 열리고  
 北과 東과 西가 좀 높게 둘러싸인 4神에 守護되고 있  
 는 地形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高句麗古墳 壁畫에 관해서는 이때까지 高松塚  
 古墳 壁畫와 時代樣式을 比較함에 있어서 相當한 認識  
 不足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高句麗壁畫古墳에는 4世紀 以來 7世紀의 中  
 葉에 이르기까지의 實로 300年을 넘는 連綿한 歷史  
 가 있고 그 동안에 相當한 時代樣式的 變遷이 보인다는  
 것이다.

高句麗古墳과 高松塚의 星辰圖와의 對比圖

東方七宿				北方七宿				西方七宿				南方七宿			
德花里 第2号墳	眞塗里 第4号墳	高松塚	(天象圖)	德花里 第2号墳	眞塗里 第4号墳	高松塚	(天象圖)	德花里 第2号墳	眞塗里 第4号墳	高松塚	(天象圖)	德花里 第2号墳	眞塗里 第4号墳	高松塚	(天象圖)
角	1	1	3	斗	5	2	7	奎	8	1	6	牛	11	9	10
亢	□	3	4	牛	Y	3	水	畢	1	2	3	名	□	□	1
位	□	□	3	女	□	4	8	胃	4	1	4	柳	5	2	□
房	3	3	8	虛	1	1	1	昂	1	1	2	星	1	2	2
心	1	4	3	危	1	1	2	畢	1	1	1	味	3		4
尾	3	2	4	室	1	1	1	觜	1	1	1	異	1	1	3
箕	□	4	4	壁	1	1	1	參	1	1	1	鈴	□	1	□

6世紀 後半에서 7世紀 初로 보이는 江西大墓의 靑龍圖와 安岳第2號墳의 飛天圖에는 이미 高松塚의 壁畫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遠近凹凸法에 따른 立體的表現法이 適用되고 있어 그것들이 얼마나 寫實的이며生氣에 넘쳐 있는가. 特히 後者는 바로 高句麗美人의 典型이라고 할수 있는 淸純하고 魅力에 찬 것이다.

여기서 高句麗美人이라고 하면, 高句麗古墳 壁畫에서 各 時代를 通하여 變하지 않는 것은 女性들의 色調華麗한 衣裳들인데 天壽國繡張과 高松塚의 壁畫에서 볼수 있는 飛鳥美人의 衣裳이 틀림없는 高句麗式이라는 것은 그 누구의 눈에도 이제 分明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眞坡里第1號墳에서 三足鳥로 日輪을 나타낸 流雲紋透彫 金銅製의 冠帽의 出土를 보면, 그 테두리 裝飾의 珠紋帶에는 玉虫色의 날개가 숨겨져 있다. 이 玉虫色의 날개를 감추어 꾸민 透彫의 裝飾의 馬具가 新羅王陵에서도 出土되고 있지만, 法隆寺에 있는 玉虫龕室의 名稱의 由來가 된 玉虫色의 날개를 감추어 둔 透彫飾鐵裝具의 源流가 생각나 흐뭇하다.

# 廣開土王陵碑文과 古代日朝關係史

旗田 巍

(日本都立大學 名譽教授)

廣開土王(好太王·永樂大王)은 高句麗 第 19 代의 王이다.

正式의 諡號는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지만 그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王은 在位 22 年 동안(391~412 年)에 四方을 向하여 領土를 擴大하여 強大한 高句麗王國을 쌓아 올렸다.

廣開土王陵碑(好太王碑)文은 王의 功勳을 後世에 傳하기 爲하여 그 王陵에 建立된 墓碑銘이다.

높이 6 米餘의 巨大한 碑石은 지금도 아직 高句麗의 古都 國內城(現在 中華人民共和國 吉林省 輯安)의 郊外에 서있다.

이 碑文은 4 世紀末에서 5 世紀初에 걸친 東亞세아史,

특히 日本과 朝鮮 3國(高句麗·百濟·新羅)과의 關係를 解明하는데 가장 重要한 史料이다.

이 碑文은 千數百年의 오랜 동안에 잊혀져 버리고 있었다.

巨大한 碑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있었으나 碑面에 이끼와 雜草들이 茂盛하여 文字를 덮어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石碑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알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 實體를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約 100 年前인 1880 年代에 이르러서 부터였다.

碑를 發見한 附近의 農民이 알려줌으로써 처음으로 中國의 地方官吏가 碑를 調査한 結果, 文字들이 나타나 廣開土王의 功業을 記錄한 것이라는 것이 알게 되었다.

碑文의 寫本은 中國의 學者들에게 傳해지면서 俄然 注目を 끌게 되었던 것이다.

中國의 學者와 나란히, 아니 오히려 그 以上으로 이 碑文에 注目한 것은 日本人이었다.

碑文이 發見된지 얼마 안되어 當時의 日本의 參謀本部로부터 中國으로 派遣되어 때마침 偶然히 輯安에 들르게 된 探偵將校 酒匂 景信(사코오·가게노부)은 碑文中에 「倭」의 活動이 새겨져 있는 것을 알고 그 雙鈎本을 떠서 日本으로 가지고 돌아갔다.

이것을 받아 든 參謀本部는 그 研究를 爲하여 專門 研究家들을 불러 모아 秘密裡에 碑文의 解讀·解釋의 作業을 進行시켰다.

그 作業이 一段落을 보게 되자 그 研究結果를 雙鈎本과 함께 『會餘錄』 第5集(1889年)에 發表하였다.

이로써 비로소 一般 日本人들이 碑文의 存在를 알게 되었다.

그 뒤에 많은 學者들이 碑文을 研究하고 잇달아 그 成果를 發表하였다.

또 現地로 가서 碑文을 調査하는 者도 있었다.

그들의 研究나 調査에 따라 參謀本部에서의 研究보다 훨씬 精密하고 緻密한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碑文의 解釋의 基本은 參謀本部에서 된 것을 繼承하였다.

日本人이 廣開土王陵碑文에 깊은 關心을 기울이게 된 것은 무엇때문이었을까.

參謀本부의 研究와 또 그 뒤의 學者들의 研究에 따르면 「倭」를 大和政權으로 看做하고, 그 「倭」는 4世紀末에 朝鮮에 出兵하여 百濟와 新羅를 服屬시키고, 5世紀初에는 高句麗의 大軍을 相對로 싸운 것으로 된다.

古代日本の 朝鮮出兵과 朝鮮支配가 日本人들에게 特別한 關心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明治以後의 日本은 「大陸發展」을 指向하여 그 第一歩로서 朝鮮支配를 企圖하고 朝鮮에 대한 傳統的宗主權을 主張하는 淸國과 對立하였다.

壬午軍亂(1882年)과 甲申政變(1884年)으로 因하여 日本은 朝鮮으로부터 後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朝鮮支配의 機會를 노리고 있었다.

그와 같은 時期에 碑文이 日本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參謀本部는 그 碑文을 가지고 古代日本の 朝鮮에서의 活動을 日本國民에게 알러서 「大陸發展」의 輿論을 喚起시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다. 碑文은 古代日本の 朝鮮出兵 및 朝鮮支配라는 傳承의 뒷받침으로서 提示되게 되었던 것이다.

元來 『日本書紀』에 記述된 神功皇后의 「三韓征伐」과 任那日本府의 「朝鮮經營」이라는 傳承은 古代·中世·近代를 通하여 日本人의 意識속에 存續해 왔는데, 特히 日本이 朝鮮을 侵略하려할 때는 더욱 强하게 想起되었다.

이러테면 幕府末期에 黑船의 來航으로 日本이 國際的 危機에 處하게 되었을 때 西洋諸國에 對抗하기 爲해서는 日本은 아세아를, 그 第一步로서 朝鮮을 손에 넣어 日本을 膨脹시킬 必要가 있다는 意見이 나타났는데, 그때 古代日本の 朝鮮支配라는 傳承이 强하게 想起되었던 것이다.

이어 明治初期의 「征韓論」者는 위의 傳承을 想起해

가면서 朝鮮侵略을 主張하였다.

明治以來의 教育의 普及에 따라 教科書를 通하여 이러한 傳承은 國民들속에 널리 浸透되어 나갔다.

그리고 거기에 廣開土王陵碑文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傳承을 뒷받침 하는 絶好의 材料가 된 것이다. 이 碑文에 依하여 『日本書紀』의 傳承은 單純한 傳承이 아니라 確實한 事實로서 보여지게 되었다.

日本이 朝鮮을 植民地로서 支配했던 時代에는 古代日本の 朝鮮支配라는 歷史像은 日本人 子弟들 뿐만 아니라 朝鮮人の 子弟들에 대해서도 學校教育을 通하여 注入되었다.

朝鮮總督府는 任那日本府의 再現이며 歷史以來의 모습에 따른 것이다 하는 따위의 論議가 나타났다.

또 이 歷史像은 日本人들의 마음 속에 朝鮮인에 대한 優越感을 낳게 한 것이다.

敗戰後에 日本人의 歷史意識은 꽤 크게 變하였다. 지난날의 皇國史觀은 批判되고 科學的 歷史認識이 旺盛해

지기 始作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不拘하고 古代日本の 朝鮮支配라고 하는 歷史觀은 쉽게는 變하지 않았다.

그것은 廣開土王陵碑文에 관한 明治以來의 解釋이 變하지 않았다는 것과 깊은 關聯이 있었다.

倭=大和政權은 4世紀末에 朝鮮에 出兵하여 百濟·新羅를 服屬시켰다는 碑文解釋이 그대로 繼承된 것이 그 큰 要因이었다.

한편 解放後의 朝鮮에서는 南北이 다같이 그때 까지 억눌러 왔던 祖國의 歷史에 대한 研究가 크게 일어났다.

그 중에서 古代 日韓關係史에 관한 根本的 再檢討가 이루어졌다.

北韓의 金錫亨은 『三韓·三國의 日本列島內 分國에 관하여』(『歷史科學』 1963年 第1號, 平壤.日本語譯은 1964年)에서, 從來의 日本人의 見解를 180度 轉換시키고, 三韓·三國으로부터 日本으로 移住한 사람들이 各地에 三韓·三國의 分國(一種의 植民地)을 만들고 原

住民인 日本人에 對하여 支配的 地位를 占했다고 主張하였다.

金은 나아가 『初期 朝日關係 研究』(1966年, 平壤. 日本語譯 『古代朝日關係史』1966年)에서 그 見解를 더욱 詳細하게 展開하였다.

또 日本에서는 在日朝鮮人·韓國人の 研究者들이 朝鮮으로부터의 渡來人の 遺跡과 遺物들을 日本全國에 걸쳐 探訪하여 그들이 古代日本에서 文化的·社會的으로 優位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이러한 渦中에서 廣開土王陵碑文에 對하여 從來의 日本人의 研究와는 다른 새로운 研究結果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맨 앞장은 鄭寅普의 「廣開土境平安好太王陵碑文釋略」(『白樂濬博士 還甲記念 國學論叢』1955年, 서울·日本語譯은 『古代日本과 朝鮮의 基本問題』1974년에 收錄)이었다.

鄭氏는 碑文의 論理를 따져서 倭가 百濟·新羅를 服屬시켰다는 日本人의 解讀法·解釋을 否定하고 獨特한

解讀法・解釋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그 後의 碑文研究에 새로운 方向을 開拓하였다.

한편 北韓의 學者들은 1963 年에 輯安을 찾아가서 碑文을 調査하였다.

그 調査團의 한 사람인 朴時亨은 現地調査의 成果와 文獻研究의 結果를 整理하여 『廣開土王陵碑』(1966 年, 平壤. 全浩天 譯, 1985 年)를 發表하였다.

또 前述의 金錫亨도 이 調査에 參與하였는데, 碑文의 解讀法・解釋에 관하여 獨自적 論文을 내고 그것을 前記의 論文・著書에서 發表하였다.

朴・金은 各各의 研究成果에 立脚하여 日本人의 傳統的見解를 날카롭게 批判하였다.

이와 같은 南北學者들의 研究는 從來의 日本人들의 歷史認識을 根本的으로 뒤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日本人研究者들에게는 큰 問題였다.

多様な 反應들이 있었다. 그 中에서 中塚 明氏は「近

代史學史에 있어서의 朝鮮問題—廣開土王陵碑를 둘러 싸고—」(『思想』 561號, 1971年3月)를 發表하고, 碑文의 雙鉤本을 日本으로 들여온 것이 探偵將校이고 初期의 碑文研究가 參謀本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 後의 學者들의 研究가 그것을 基本的으로는 繼承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日本人의 碑文研究의 體質을 批判하였다.

이어서 李進熙氏가 『廣開土王陵碑의 研究』(1972年)를 發表하였다.

李氏는 多數의 拓本·雙鉤本·寫眞本·釋本등을 모아 그것들을 編年하여 年代에 따른 碑의 文字의 變化의 자취를 追跡하고, 碑文에는 重大한 變造가 加해졌다는 것. 卽, 먼저 酒匂가, 그리고 繼續해서 1900年頃에는 日本 軍部가 碑面에 石灰를 바르고는 日本에 有利하도록 文字를 變造하였다고 主張하였다.

李氏의 碑文變造論은 內外에 큰 反響을 불러일으켰다.

日本の 研究者들은 거센 反對를 表明하였다. 大韓民國의 學界에서는 支持者가 많았다. 北韓의 學者들은 오랫동안 沈默하고 있었으나 最近에 反對를 보였다.

또 現地의 中國의 學者도 反對를 表明하였다.

그 뒤 碑文研究는 더욱 旺盛해졌다. 日本에서는 最初에 雙鉤本을 가지고 온 酒匂 景信의 經歷과 參謀本部에서의 研究經緯에 대하여 追及이 進行됨과 동시에 碑文의 解讀法과 解釋에 관하여 多様な 研究가 나왔다.

韓國에서는 碑의 文字의 訂正과 解讀法·解釋에 대하여 잇달아 새 見解들이 나왔다.

또 中國에서는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長인 王健群氏가 長年の 研究를 整理하여 『好太王碑研究』(1984年, 日本語版 『好太王碑의 研究』, 1984年)를 發表하였다.

이들 內外 多數의 學者들의 研究에 따라 碑文研究는 한층 더 精緻해졌다. 勿論 見解의 差는 남아있다.

그러나 지난 날에서와 같이 이 碑文을 基礎로 하여 古代日本(大和政權)의 朝鮮支配를 主張한다는 것은 어렵게 된 것이다.

古代 日朝關係史에 관한 日本人의 傳統的인 歷史意識은 크게 動搖하고 있다.

近年 日本人學者로서 輯安을 訪問하여 碑를 現地에서



調査하고 오는 사람이 뒤를 잇고 있다.

또 一般 日本人으로서 旅行社의 募集에 應하여 現地  
를 찾아가는 사람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關心의 高潮가 碑文研究의 深化에 도움이  
되기를 期待하고 싶다.

또 碑文에 關係가 깊은 日本・朝鮮(南北을 包含)・  
中國의 學者들에 依한 共同調査・共同討議의 機會가 올  
것을 期待하고 싶다.

# 目 錄

## 〈古墳壁畫〉

- |                |                  |
|----------------|------------------|
| 1. 王 后         | 安岳 第3號墳 (4世紀 中葉) |
| 2. 王           | //               |
| 3. 墓室內部        | //               |
| 4. 帳下督         | //               |
| 5. 厨 房         | //               |
| 6. 방아간         | //               |
| 7. 우 물         | //               |
| 8. 마굿간         | //               |
| 9. 외양간         | //               |
| 10. 角 笛        | //               |
| 11. 手搏圖        | //               |
| 12. 假面舞        | //               |
| 13. 儀仗兵        | //               |
| 14. 擔鐘圖        | //               |
| 15. 騎馬鼓와 吹奏樂隊圖 | //               |

- |                             |                   |
|-----------------------------|-------------------|
| 16. 行列圖 (模寫)                | 安岳第 3 號墳 (4 世紀中葉) |
| 17. 殿閣圖                     | 安岳第 1 號墳, 4 世紀末   |
| 18. 人頭牛                     | //                |
| 19. 天馬, 飛魚圖                 | //                |
| 20. 麒麟圖                     | //                |
| 21. 墓主 鎭에 伺候하는<br>幽州 13 郡太守 | 德興里壁畫古墳 (408 年)   |
| 22. 墓 主                     | //                |
| 23. 主人公鎭의 墓誌                | //                |
| 24. 行列圖                     | //                |
| 25. 陽 光                     | //                |
| 26. 狩 獵                     | //                |
| 27. 天 馬                     | //                |
| 28. 牽牛와 織女                  | //                |
| 29. 女主人公의 牛轎車               | //                |
| 30. 流鑿馬                     | //                |
| 31. 蓮花・七寶行事의 圖              | //                |
| 32. 主人公夫婦・玄武와 北斗七星          | 藥水里壁畫古墳 (5 世紀初)   |

- |                 |                       |
|-----------------|-----------------------|
| 33. 달과 白虎       | 藥水里壁畫古墳 ( 5 世紀初 )     |
| 34. 朱雀과 昴星      | //                    |
| 35. 太陽과 靑龍      | //                    |
| 36. 狩獵圖         | //                    |
| 37. 마굿간         | //                    |
| 38. 외양간         | //                    |
| 39. 守衛圖         | //                    |
| 40. 行列圖 ( 模寫 )  | //                    |
| 41. 騎馬武士의 隊列    | //                    |
| 42. 男子群像        | 大安里第 1 號墳, 5 世紀中葉     |
| 43. 人物圖 ( 全體圖 ) | 水山里壁畫古墳, 5 世紀後半       |
| 44. 曲藝圖와 主人公夫婦  | //                    |
| 45. 女人群像        | //                    |
| 46. 主人公과 臣下     | //                    |
| 47. 供養圖         | 雙楹塚, 5 世紀末            |
| 48. 主人公의 室內生活   | //                    |
| 49. 女人과 아이들     | 安岳第 2 號墳, 5 世紀末~6 世紀初 |
| 50. 門衛 武人       | //                    |

- |            |                      |
|------------|----------------------|
| 51. 門衛 武人  | 安岳第 2 號墳, 5 世紀末~6世紀初 |
| 52. 飛 天    | //                   |
| 53. 青 龍    | 湖南里 4 神塚, 5 世紀末~6世紀初 |
| 54. 朱 雀    | //                   |
| 55. 白 虎    | //                   |
| 56. 玄 武    | //                   |
| 57. 星宿圖    | 眞坡里第 4 號墳, 6 世紀前半    |
| 58. 連續紋圖   | //                   |
| 59. 蓮花紋圖   | //                   |
| 60. 蓮 池    | //                   |
| 61. 星宿圖    | 德花里第 2 號墳, 6 世紀      |
| 62. 松      | 眞坡里第 1 號墳, 6 世紀後半    |
| 63. 花 雲    | //                   |
| 64. 太陽斗  달 | //                   |
| 65. 青 龍    | 江西大墓, 7 世紀           |
| 66. 玄 武    | //                   |
| 67. 忍冬唐草紋樣 | //                   |
| 68. 白 虎    | //                   |

- |                 |                  |
|-----------------|------------------|
| 69. 朱 雀         | 江西大墓， 7 世紀       |
| 70. 朱 雀         | //               |
| 71. 主人公生活圖（模寫）  | 角抵塚， 4 世紀末       |
| 72. 씨 름（模寫）     | //               |
| 73. 手搏戲圖（模寫）    | 舞踊塚， 4 世紀末       |
| 74. 彈琴神，白虎圖（模寫） | //               |
| 75. 朱雀（模寫）      | //               |
| 76. 乘鶴神圖（模寫）    | //               |
| 77. 群舞（模寫）      | //               |
| 78. 狩獵（模寫）      | //               |
| 79. 迎賓圖（模寫）     | //               |
| 80. 行列圖（模寫）     | 三室塚， 5 世紀初       |
| 81. 飛天圖（模寫）     | //               |
| 82. 攻城圖（模寫）     | //               |
| 83. 飛天圖（模寫）     | 長川第 1 號墳， 5 世紀中葉 |
| 84. 佛教圖（模寫）     | //               |
| 85. 舞樂圖（模寫）     | //               |
| 86. 狩獵斗 野遊會（模寫） | //               |

87. 乘鶴神圖(模寫) 輯安5塊墳第4號墓, 6世紀
88. 燧神·대장神圖(模寫) //
89. 日神·乘鳳凰圖(模寫) //
90. 黃龍圖(模寫) //
91. 青龍圖(模寫) //
92. 日神·月神圖(模寫) 輯安5塊墳第5號墓, 6世紀
93. 蓮花圖(模寫) //
94. 舞踊神·吹笛神圖(模寫) //
95. 龍圖(模寫) //
96. 吹奏大角神·笛簫神圖(模寫) //
97. 製輪神(模寫) //
98. 打鼓神·彈琴神圖(模寫) //
99. 朱雀(模寫) //
100. 農業神(模寫) //

〈遺跡, 出土品, 復元品〉

101. 安鶴宮(模型)
102. 大城山城(模型)

103. 東明王陵斗 定陵寺址（模型）
104. 金剛寺塔（模型）
105. 廣開土王陵碑（實物大模型）
106. 高句麗瓦
107. 怪面紋丸瓦瓦當
108. 蓮花紋丸瓦瓦當
109.            //
110. 平瓦瓦當
111. 磚
112. 定陵寺 出土의 刻字土器
113. 日像透彫金銅裝飾
114. 소나무型 金銅裝飾
115. 火炎紋透彫金銅冠
116. 永明寺石製獅子像
117. 刻字城石
118. 光 背
119. 金銅佛（對）
120. 金字寫經



121. 天象列次分野之圖
122. 갑옷騎馬武士(復元品)
123. 兵士像(刀手, 復元品)
124. 男子服飾(復元品)
125. 女子服飾(復元品)
126.     "   ( " )
127.     "   ( " )
128.     "   ( " )
129.     "   ( " )
130. 橫笛(復元品)
131. 角笛(復元品)
132. 簫(復元品)
133. 腰鼓(復元品)
134. 振太鼓(復元品)
135. 懸鼓(復元品)
136. 建鼓(復元品)
137. 擔鼓(復元品)
138. 馬上鼓(復元品)